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획·편집 : 이 명 숙 원장

집필 : (가나다 순)

권진화	김기현
김영지	맹영임
박영균	서정아
성윤숙	오해섭
윤철경	이혜연
임희진	장근영
최창욱	



미주 및 유럽 각국에서는 어린 시기부터 학교안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성과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체적 인성을 키워나가도록 청소년의 교육 다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세계적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각급학교에서 미래형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기로 발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41호)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현행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여 주당 3시간씩 공교육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8년~2009년 동안 연구직원들이 미주, 유럽, 일본 등 12개국을 방문하여 수집한 각국의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시설 자료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금번에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의 내용은 창의성교육, 진로체험, 봉사체험, 사회체험, 녹색체험, 미디어 체험, 그리고 지원체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획/운영/지도하는 실무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창의인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역량개발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본 원장과 더불어 우리원의 공동집필자 14명은 더 할 수 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8월

이 명 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창의성 교육

- 뉴질랜드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KeNS** / 장근영 06
- 일본의 역량기반학습 사례 **쇼케이가쿠인 중학교** / 김기현 18

| 진로 체험

- 홍콩의 청소년 창업지원프로그램 **S.P.O.T(Tsuen Wan Youth)** / 권진화 36
- 캐나다의 청소년 고용전략 **YES** / 윤철경 46
- 프랑스의 청소년작업장 **Chantiers de Jeunes** / 이혜연 60

| 봉사 체험

- 미국의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 **텍사스 지역사회교육원 ISOTURE 자원봉사관리이론**
/서정아 74
-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활동 **Get Ready for Geneva!** / 김영지 88
- 캐나다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사업 **VSO 캐나다** / 윤철경 100

| 사회 체험

- 그리스의 창의적 체험활동 **Field Trip 2박3일** /최창욱 110

| 녹색 체험

- 일본의 대안학교 체험활동 **키노쿠니학원** / 맹영임 120
- 일본의 환경사업 진흥전략 **키타큐슈 에코타운** / 오해섭 132
- 북유럽의 환경보호체험 **Green Flag** / 임희진 142

| 미디어 체험

- 캐나다의 인터넷안전 사용지침(교사용) **kit101** / 성운숙 150
- 캐나다의 전국미디어교육주간 체험활동 / 성운숙 154

| 지원 체계

- 핀란드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기관 **교육부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실** / 박영균 160

창 · 의 · 성 · 교 · 육

뉴질랜드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KeNS*

장근영 ¹⁾

→ 개요

뉴질랜드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공교육체계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프레임으로 개혁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공교육 개혁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추진해온 DeSeCo 프로젝트(OECD, 2005)를 기초로 설정한 것이다. 뉴질랜드 교육부, 기업 그리고 학계라는 정책·고용·연구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3개 그룹이 이런 핵심역량 개념을 검토하고 토의하면서 뉴질랜드의 공교육 부문의 핵심역량 중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수정교육과정의 초안(Ministry of Education, 2006)은 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 설정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혁신하면서 공교육의 목표를 다음 5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육성으로 설정했다. 그 5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역량 1. 타인과의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역량 2.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역량 3. 참여하고 기여하기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역량 4. 생각하기 (Thinking)

역량 5. 언어, 상징 및 문자 사용하기(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핵심역량개발 중심의 공교육체계는 전통적인 기술교육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미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생활 장면으로 연결되어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안내서에서도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프레임은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6). 이때문에 뉴질랜드 교육부가 강조한 핵심역량은 의무교육기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이전의 유아교육, 그리고 의무교육 이후의 대학 및 직업 교육에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국가에서 규정한 5가지 핵심역량은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을 통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2]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과정 구조를 보면 ‘학생들을 자신감 있고, 서로 연계되고,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아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Exploartion 탐 색	Thingking 사고하기
Communication 의사소통	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 언어,상징 텍스트 사용
Well-being 참살이	Managing self 자기관리하기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p. 42.

[그림 II-2] 뉴질랜드 핵심역량의 유아·초·중등·고등교육 간 연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로 길러낸다'라는 비전(vision)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결된다. 뉴질랜드는 2005년부터 보통학교연합(Normal School Association)과 뉴질랜드교육부(MOE)가 공동으로 핵심역량 기반(Key Competencies Framework) 교육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인 <Shifting the Frame>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핵심역량중심 교육의 도입과 진행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과 연구진이 협조한 과정과 교육의 목표 등은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학습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주한 뉴질랜드대사관과 뉴질랜드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2009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제 뉴질랜드 학교의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학교는 웰링턴에 소재한 2개교와 오클랜드의 1개교로서 모두 2005년부터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학교들이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Kelburn Normal School(이하 KeNs)의 사례를 통해 뉴질랜드의 교육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KeNS 소개

켈번 보통학교(Kelburn Normal School)은 뉴질랜드 웰링턴시(Wellington)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학교로 2005년부터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 대한 방문은 뉴질랜드 교육부를 통해 섭외하였으며, 교육부 담당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였다. 사전방문 시, 본 조사의 취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실학습 관찰 대상으로 선정된 과목은 문학과목으로 특히 본 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율적 탐구학습 과정으로 제시하는 교과목이었다.

관찰교과	관찰시간	면담대상 교사수
문학	2시간	2명 (교장, 담당교사)

→ 활동 사례 소개

관찰대상 학급은 저학년반(9세-11세)과 고학년반(12세-15세)의 두 개 학급이었다. 뉴질랜드 핵심 역량기반교육의 특성중 하나는 통합교과목으로 운영하며 학년까지 통합 운영 한다는 점이다. 본 과목은 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한다. KeNS의 화요일 오전시간은 이와 같은 선택과목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강생은 저학년반은 19명, 고학년반은 16명이었으며, 남학생은 소수이고 주로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교실에서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실은 전체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책상 이외의 공간에 의자를 모아서 20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다. 교실 한쪽에는 대형 화이트 보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으며 컴퓨터 등의 기자재는 없었다. 교실의 반대편 벽에는 핵심역량개념을 도식화한 자료가 붙어있었는데, 이런 배치는 KeNS의 모든 학급에서 비슷하지만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각 학급마다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수업은 화이트보드 앞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웠다.

학습은 학생들이 미리 해당교재를 스스로 공부한 다음 교사와는 주로 토론수업 형태로 진행을 한다. 저학년반의 경우 학생들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동화를 읽고 이를 원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모두 본 다음 수업에 참여했으며, 고학년반의 학생들은 브레히트의 희곡인 <The Caucasian Chalk Circle>을 읽고 수업에 참여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순서대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하며 대답을 지체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학년반이나 고학년반 학생들 모두 수업시간에 자신들의 대답이 늘 환영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업을 관찰하는 연구진 앞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교사와 토론을 진행했다.

관찰결과, 이런 형태의 토론학습에서 학습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학급의 규모는 모든 학생이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는 정도였기에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단, 저학년반의 유일한 마오리족 학생은 수업시간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 고학년반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자기표현에 서툰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도 높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활발한 토론수업이 가능한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학습환경에 이런 토론수업을 도입하려 한다면 필연적으

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관찰했던 문학과목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2시간 짜리 만화 영화와 180페이지가 넘는 원작 동화를 전부 읽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여유시간이 필요하다. 즉 뉴질랜드 학생들이 토론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시간적인 여유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공립 초·중등학교(1-8학년)는 오후 3시에 모든 수업을 종료하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다른 활동이 없으므로 학생들의 여유시간이 많다. 두 번째 요인은 자기효능감(self competency)이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과 표현능력, 그리고 자신의 표현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당연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토론 수업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 일상화한 환경에서 최대한도로 가능해진다. 세 번째 요인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진행방식이었다. 상급반에서 희곡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을 표현하게 할 때, 교사는 남학생들에게는 몸을 움직여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주로 대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활동성이 큰 남학생들에게는 긴장과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교사와의 면담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남학생들은 문학에 관심이 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은 비교적 특수한 경우다. 그럼에도 여학생들에 비해서 언어적인 표현보다 행동표현을 선호한다. 나도 그런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준비와 자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교사는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미리 읽거나 시청해야 할 자료와 함께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가이드(guide)하는 질문을 미리 제공한다. 즉 자율학습이지만 교사의 가이드에 따른 자율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소설, DVD)는 학교에서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수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를 교실 벽에 표현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비록 참여 관찰진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수업 도중에 교사가 지금 자신들이 참여하는 수업과정이 어떤 핵심역량에 해당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이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생애핵심역량에 어울리는 질문이나 대답을 스스로 찾아냈으며 그걸 거리낌 없이 교사에게 제시하고 교사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은 그 자체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의력을 요구하고 증진하는 체험활동이었다. 즉, 뉴질랜드의 창의적 체험은

수업 자체였다. 그 결과 이 수업은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공유하면서 함께 교과목표를 달성해가는 협동과정이 될 수 있었다.

아래에 기술한 교장과 교사와의 면담내용도 이와 같은 해석과 일치한다.

면담자 :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

교 장 : 학교에서 제작한 핵심역량 영역별 워크북이 있다.

이 워크북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교사가 이를 조절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한다.

교 사 : 모든 학생들은 각 수업시간에 채워넣어야 하는 질문지를 받는다.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고 수업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를 선택한다.

토론수업이 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실제 통제권은 교사에게 있다. 그리고 이 통제권을 이용해서 학습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도록 배려했다. 질문은 반드시 먼저 교사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교사 재량에 의해 학생 스스로 답하게 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대답을 할 기회를 주면서 수업시간을 장악한다. 즉, 교사는 학습과정 전반에 대해 전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과 1회 이상 질의응답을 교환했다. 또한 토론 주제는 우선 교사가 제시했으며, 학생들의 몇몇 대답을 새로운 주제로 추가할지의 여부도 교사가 결정한다. 또한 학습과정을 교사와의 질의응답 세션과 주제별 자유토론과 과제수행 세션, 그리고 최종 정리 세션으로 구분하고 진행하는 것도 교사다. 교사는 학습과정의 마지막에는 혼자 일어나서 모든 학생을 조용히 시키고 수업내용을 최종 정리함으로써 해당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든 학생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겉보기에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유롭게 진행되는 비정형화된 수업 같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주도면밀한 가이드를 따르는 정형화된 수업인 것이다.

면담자 : 질의응답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

교 사 : 모든 학생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정리가 필요한데, 개방형(open ended)자유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학습내용이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본 형태의 학습에서는 이 최종정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 창의성 관련 요소 분석

창의성이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의사소통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검증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발달된다. 본 관찰을 통해 이와 같은 창의성 요소들이 어떻게 촉진 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 자기관리 요소 (self-management)

㉠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전제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이든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인식할 때 그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왜냐하면 그 활동의 결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 과목은 시작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과목 자체가 선택과목이므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이 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면담자 :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 사 : 우선 이 학급 자체가 선택과목이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나 과목의 매시간 학습목표는 교사가 정하며 교재와 시간도 교사가 정한다. 단 주어진 과제를 준비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도 각 학생들의 몫이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교사는 다음 시간의 목표를 조정하기도 한다.

㉡ 체험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축적

또한 상호 토론이라는 수업의 진행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준비와 참여를 요구한다.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학습계획을 작성하며, 그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준비와 참여 없이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체득한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 축적된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은 이후의 모든 창의적 행동의 기본적인 에너지로 작동한다.

면담자 :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나?

교 사 : 저학년의 경우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 문학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며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도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자체가 역량이다.

교 장 :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효능감이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㉔ 내성(reflection)과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이 과목은 성찰적인 글 읽기(reflective reading)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떤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의견이나 동료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은 자신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조망수용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내면화 하게 되면 사물이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이런 다면성의 이해는 창의성의 기반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부터 먼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다른 학생의 대답을 경청한다. 또한 교사는 수업 도중에 자율토론시간을 주어서 1단계(교사-학생 문답)에서 도출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소그룹을 구성해서 각 그룹단위의 대답을 준비한다. 학습자들은 이런 수업방식에 익숙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면담자 : 공부를 할 때 학생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도움이 되는가?

교 사 : 학생들은 과제에 대답을 쓰면서 서로 토의하며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물론 보시듯 교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성찰적인 글 읽기(reflective reading)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떤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의견이나 동료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내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 사 : 이 과목의 학습은 읽은 책이나 영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문학수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㉕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연계성

이 과목은 문학이라 다른 과목과 무관해보이지만, 다루는 책의 내용에 따라서 수학이나 과학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는 어떤 지식을 다양한 관련 분야와 연결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즉, 사건이나 사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실제로 실현하고 체험함으로써 창의성의 기본 바탕이 증진된다.

면담자 :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이나 분야의 지식을 배우거나 활용할 기회가 있나?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하나?

교 사 : 주로 문학이나 예술과목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다루는 책의 주제가 SF가 되면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 창의적인 표현기회의 제공

수업은 발표수업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희곡을 배울 때는 특정한 장면을 스스로 연기하기도 한다. 또한 각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다른 학생의 답변에 자기 의견을 추가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면담자 : 남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표현할 기회가 많은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남들 앞에서 더 조리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은가?

교 사 : 관찰했듯이 본 수업은 그 자체가 자기표현이다. 각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다른 학생의 답변에 자기 의견을 추가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물론 학생들은 갈수록 자기표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뉴질랜드의 역량기반 학습과정의 특징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능력수준과 흥미영역에 따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등 자기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과정 역시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나 협동성이 동시에 요구되며 타과목과의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수업이 진행된다. 자기관리 뿐만 아니라 언어, 상징 텍스트의 활용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KeNS에서 관찰한 교실학습 과정은 문학과목이라서 특히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재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읽고 생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성찰적인 읽기 과정 자체가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므로 다면성을 습득하고 연습하게 된다. 또한 문학작품의 구성과 표현방식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언어, 상징 텍스트의 활용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 포괄적인 창의성 교육이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이 뉴질랜드의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행정·실행 기관들에 깊이 뿌리내린 자율적인 태도였다. 뉴질랜드 교육연구센터(NZCER)의 Rosemary Hipkins 박사는 핵심역량중심 교육개혁이 성공한

비결을 묻는 연구진에게 절대로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할 일은 교사들에게 핵심역량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각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에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한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내년인 2010년에 핵심역량기반 교육커리큘럼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 뉴질랜드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하달하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각자의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반면, 어떤 학교는 자기들의 교육방식으로도 핵심역량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극히 부분적인 변화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자율적인 기반에서 자율적인 행동역량이 개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역량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그 자신감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고해진다. 뉴질랜드 교육계가 핵심역량기반 교육제도를 준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뉴질랜드 사회구성원들의 핵심역량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자율적인 행동도 지적 도구의 활용도,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모두 거기에 담겨있었다. 이곳에서 이루어낸 것보다 그것을 이루어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즉 교육현장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for English-medium teaching and learning in year 1-13.
- Boyd, S. and Watson, V. (2006) Shifting the Frame: Exploring integration of the Key Competencies at six Normal School, Wellington: NZCER.
- 김기현·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 · 의 · 성 · 교 · 육

일본의 역량기반학습 사례-쇼케이가쿠인 중학교

김기현 ²⁾

→ 개요

일본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기반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뉴질랜드에 이어서 방문한 두 번째 국가였다. 입시지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는 학술용어가 쓰였을 만큼 사교육열풍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 일본이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유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모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에서 꽤 오래전에 역량 개념이 교육에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학습기본요령(学習基本要領)」의 개정으로 ‘생활력(生活力)’이라 하는 교육목표가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여기에서 ‘생활력’이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인 통제능력, 타인과의 협조, 타인에 대한 배려, 감동할 줄 아는 풍부한 인간성, 건강한 신체와 체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OECD에서 2003년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의 결과로 제시한 핵심역량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 교육과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도호쿠대(東北大)의 미즈하라(水原 克敏) 교수는 연구진과 함께 참여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생활력’이 OECD가 제안한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를 “앞서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자신감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수긍이 갔다. 그 이유는 2006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일본에서 제기된 학력저하 논쟁과 ‘여유로운 교육(ゆとり教育)’에 대한 비판이 2008년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4월부터 적용된 교육과정에서 생활력이라는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감축되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즈하라 교수는 일본 언론에서 2008 교육과정 개정을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감소를 근거로 여유로운 교육에서 학력 중시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학습과 각 교과목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과목의 활용 능력, 특히 언어 능력의 육성을 모든 교과목에 걸쳐서 요청하고 있으므로 생활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은 어떨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센다이(仙台)시에 위치한 쇼케이가쿠인(尚絅学院) 중학교였다. 연구진이 이 학교에 방문하여 관찰한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형 학습으로 우리나라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에 해당하는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연구위원

교외학습 시간이었다.

중학교 1학년 탐구형 학습은 교외학습시간으로 우리가 방문한 시기에 수업은 각 조별로 진행한 탐구활동을 중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중간발표는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1학년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발표를 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아오모리 현(靑森縣)과 아키타 현(秋田縣)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탐방 내용을, 3학년 학생들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탐방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역사, 인권문제,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학년별 발표 후 후배나 선배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서로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모든 수업의 진행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질의응답시간에 다른 학생들처럼 손을 들어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참관을 하였다.

4시간가량 진행된 탐구형 학습을 관찰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일본의 교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일부 해소해주었다. 물론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탐구형 학습 담당 선생님의 지적처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의 체질 개선이나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을 할애하는 접근방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본 지방도시의 평범한 학교에서 관찰한 대학연계수업이나 프로젝트수업(PBL)은 뉴질랜드의 교과통합적 접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좋은 참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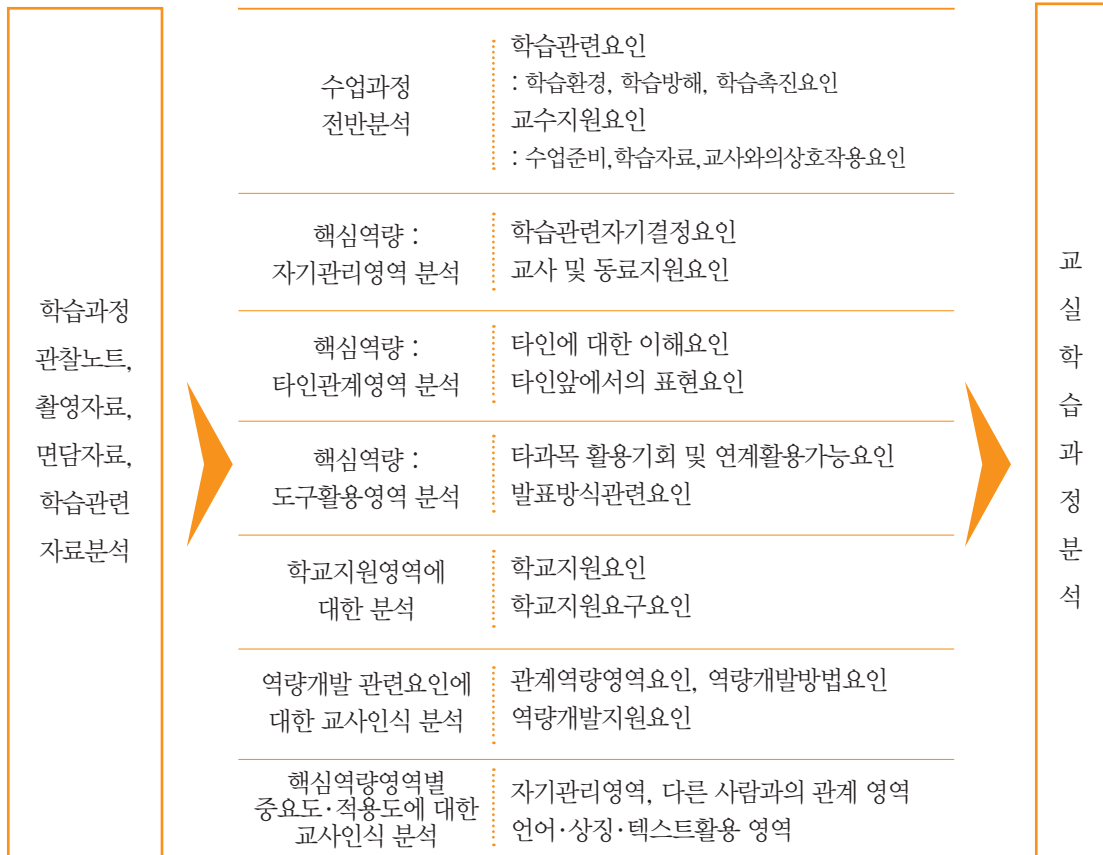
→ 교육현장 분석틀

국내·외 학교 교실과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정 관찰 및 면담조사 분석틀은 미국의 호라이즌 연구소에서 실시한 Inside the Classroom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모형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국내외 교실 학습연구 분석틀, 뉴질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적용연구의 조사표를 활용하여 자체개발한 학습과정관찰노트 및 면담조사표를 기초로 만들어 졌다.

교실학습과정 분석은 학습과정관찰노트를 시간대별로 작성하고 비디오카메라, 리코더 등을 가지고 교실학습 내용을 촬영한 자료와 학교에서 제공해 준 자료, 교실 내에 비치된 자료, 수업시간에 사용된 학습관련자료, 면담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교실학습과정 분석은 수업과정 전반, 핵심역량의 세 영역(자기관리, 타인과의 관계, 도구활용)으로 구분·분석하였다. ① 수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학습관련요인과 교수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학습관련요인은 학습환경요인,

학습방해요인, 학습촉진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① 교수지원요인은 수업준비요인, 학습자료요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② 핵심역량의 자기관리 영역에 대한 분석은 학습관련 자기결정요인, 교사 및 동료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사 및 동료지원요인은 교사지원 및 평가요인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요인으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③ 핵심역량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협동성요인, 타인에 대한 이해요인 및 타인 앞에서의 표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④ 핵심역량의 도구활용 영역에 대한 분석은 타과목 활용기회요인, 타과목 연계활용 가능요인, 발표방식 관련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밖에 ⑤ 학교지원영역에 대한 분석은 학교지원요인과 학교지원요구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⑥ 역량개발관련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관계역량영역요인, 역량개발방법요인, 역량개발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⑦ 끝으로 핵심역량 영역별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교사인식은 자기관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교실학습과정 분석틀



→ 분석결과

1) 교실학습 관찰 학교 및 면담 대상

관찰대상 학교는 일본 센다이시(仙台市)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중학교이며, 지역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학교 선정 후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에 전화와 메일을 통해 본 조사의 취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설문지와 질문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때 관찰일시, 관찰대상학년 그리고 면담대상자를 결정하였다.

관찰교과	관찰시간	면담대상 교사수	면담대상 학생수
자율학습	3시간	1명	4명

2) 교실 학습 관찰 및 면담 방법

① 교실학습 관찰 방법

현장관찰노트를 시간대별로 작성하고 비디오카메라, 캠코더 등을 가지고 교실학습 내용을 촬영하였다([부록5: 학습과정관찰노트] 참조).

또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관련자료(발표자료 등)와 학교안내책자 등도 참고하였다.

교실학습 관찰 후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1학년담임교사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정보 외에 수업전반, 자기관리, 타인과의 관계, 도구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분석하였다.

② 면담방법

면담은 수업을 마친 후 관찰대상 수업의 담당교사와 교실 학습에 참여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의 선정은 교장선생님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학생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수업전반, 핵심역량(자기관리, 타인과의 관계, 도구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 교실 학습 관찰·면담 일정 및 내용

교실 학습 관찰과 면담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교시	시간	인원	장소	내용
2009. 11.6.	-	15:00- 16:00	여:20명 남:12명	다목적 교실	○ 종합 · 교외학습보고회 중간보고회 · 반별(4명)로 조사내용에 대한 발표 · 2, 3학년도 참석
	교사 면담	17:10- 18:00	교사 1명	교실	○ 교사면담 · 1학년담임교사(중, 남)
	학생 면담	16:10- 17:30	학생 3명	교실	○ 학생면담 · 교실학습관찰 참여학생(중1, 여)

4) 교실학습 과정 분석

교실학습 관찰 및 면담자료와 수업에서 사용한 활동지 등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여 대안학교의 교실학습 과정을 분석하였다([부록6: 학습과정관찰 및 면담자료] 참조). 쇼케이중학교의 교실학습 과정은 수업과정 전반, 핵심역량(자기관리, 타인과의 관계, 도구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분석하였다.

① 수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수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학습관련요인과 교수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습관련요인은 학습환경요인, 학습방해요인, 학습촉진요인 등으로 세분하고 교수지원요인은 학습자료요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요인, 수업준비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학습관련요인

학습관련요인은 학습환경요인, 학습방해요인, 학습촉진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습환경요인〉

교실은 다목적 용도로 설계된 공간으로, 천정도 높고 발표가 가능한 설비도 갖추어져 있어서 발표수업에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 2, 3학년이 전부 한 교실에 모여 있는 관계로 약간은 어수선했던 분위기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산만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대(大)교실은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로, 평상시에는 학교행사(예배, 공연 등)에 사용. 정면 오른쪽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탁자가 준비되어 있음, 교사들(각 학년별 2명, 총 6명)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음.
교실 양쪽에 창문이 있으나,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약간은 답답한 느낌을 줌.

면담자 : 공부하는 곳은 어떤가?

학생 1 : 지금 공부하는 곳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공부하기에도 적당하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교실이 너무 넓으면 산만해져서 애들이 떠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부하는 교실은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아서 공부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1학년, 여)

교사들은 발표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질문을 함으로써 발표를 촉진시킨다.

교사들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있는 느낌이며, 교사 한 명은 앞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도와주고, 나머지 교사 한 명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음. (중학교 현장관찰노트자료)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의 목표, 발표요령 그리고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해준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사(1학년)가 앞에 나와 본 수업의 학습목표 및 발표 방식, 진행순서 등에 대해 설명을 함. (중학교 현장관찰노트자료)

〈학습방해요인〉

발표 수업의 특성상 본인이 발표하는 시간보다는 발표를 듣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발표 이외의 시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발표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도 집중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진다.

면담자 :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뭔가? 무엇 때문에 방해가 가장 많이 되나?

학생 2 : 옆에서 떠들거나 너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가 방해가 된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4 : 옆에서 친구들이 떠들 때가 가장 방해가 되며, 가끔씩 수업에 필요 없는 물건을 만지고 할 때도 방해가 된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습촉진요인〉

학생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통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 공부가 잘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언제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나?

학생 1 :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했을 때가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그렇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정리될 때 그렇게 느낀다. 그리고 의견 교환이 많이
이루어질 때 공부가 잘 된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나) 교수지원요인

교수지원요인은 수업준비요인, 학습자료요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업준비요인〉

조사 및 발표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속한 그룹의 조사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경우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담자 : 수업내용에 대해서 예습을 하나?

학생 1 : 예습을 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다고 느낀다. 예습의 내용은 주로 수업내용 중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대부분 예습을 하는 편이다.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즐겁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습자료요인〉

발표 수업 후 경우, 각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며, 각 그룹의 학생들 또한 자신들이 조사,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의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은 원활한 수업의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발표시에 발표원고 이외에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면담자 : 학습 자료가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공부하는데 주어진 학습자료 들만으로 충분한가?

학생 1 : 아무래도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지금 받고 있는 수업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대부분은 수업자료가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가끔씩은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하고 느낄 때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교사와의 상호작용요인〉

학생들의 발표를 평가가 아닌 학습 및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교사는 학습 및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면담자 : 수업시간에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받는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이 주어지나? 내 대답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나?

학생 1 :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가끔 제대로 답을 못할 경우 선생님께서 재촉하기 보다는 힌트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4 : 대답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선생님께서는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중학교 1학년, 여)

교실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일부 조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이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살짝 치는 정도로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교사들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임. 교사가 특별히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거나 하지는 않음.

② 핵심역량: 자기관리 영역에 대한 분석

자기관리 영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학습관련 자기결정요인, 교사 및 동료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자기결정요인

교사는 큰 주제(지역 활성화)를 제시하고, 수업일정에 안내할 뿐 각 반별 세부 주제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인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면담자 :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어, 학습목표, 방법, 시간 등등

학생 3 :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세부적인 주제와 조사방법 그리고 시간의 배분에 대해 의논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팀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편이다. (중학교 1학년, 여)

나) 교사 및 동료지원요인

교사 및 동료지원요인은 교사지원 및 평가요인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사지원 및 평가요인〉

기본적으로 토의 및 논의의 계기는 교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교사가 대(大)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은 이에 기초하여 각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습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함으로 인해 토의 및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면담자 : 선생님이 내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나?

학생 2 : 선생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을 해 주실 때도 있다. 선생님의 힌트나 조언을 포함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면 생각하는 게 즐거워지고, 실제로도 친구들과 즐기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4 : 평소에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공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의견이 제대로 정리가 안될 때 조언을 해 주신다. (중학교 1학년, 여)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 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평가(칭찬)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종결형의 평가(점수를 매긴다거나 성적평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닌 과정형으로서의 평가(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면담자 : 선생님이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해주시나?

학생 1 : 수업중에 선생님께서 자주 코치를 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도 자주 해 주신다. 내가 발표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한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는 칭찬도 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에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니" 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중학교 1학년, 여)

〈동료와의 상호작용요인〉

모둠별 토론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적 동료관계는 학습참여에 적극적·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면담자 : 공부를 할 때 학생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도움이 되는가?

학생 1 : 수업 중에 친구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기본적으로는 그룹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의견교환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중학교 1학년, 여)

③ 핵심역량: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대한 분석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협동성요인, 타인에 대한 이해요인 및 타인 앞에서의 표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협동성 요인

협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면담자 : 수업하면서 학생들끼리 협동작업을 많이 하나? 모둠끼리, 모둠 간에도 협동작업이 있나?

학생 1 :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 제시되어,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될 때가 가장 기쁘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거의 대부분 공동 작업을 하는 편이다. 어떠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한다. 각자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제시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다. 이럴 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중학교 1학년, 여)

나) 타인에 대한 이해 요인

‘친구들을 타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는 답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역량개발에 있어 학생들간의 경쟁적, 배타적 관계보다는 학생들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인해 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면담자 : 이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나?

학생 1 : 친구들을 타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공부도 잘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수업시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씩은 내가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할 때도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다) 타인 앞에서의 표현요인

토론과 발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표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발표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발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복적인 발표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 남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표현할 기회가 많은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남들 앞에서 더 멋지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은가?

학생 1 : 이 수업은 다른 과목에 비해 발표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매번 발표 할 때마다 이번의 발표가 다음의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발표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여)

④ 핵심역량: 도구활용 영역에 대한 분석

도구활용 영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타과목 활용기회요인, 연계활용가능요인, 발표방식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타과목 활용기회요인

청소년들은 교사의 지시가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타교과의 학습내용 및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습동기의 유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면담자 :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이나 분야의 지식을 배우거나 활용할 기회가 있나?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하나?

학생 1 :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알아서 할 때가 많고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이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 내용을 수업에 활용할 때도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국어시간에 배운 작문법을 활용할 때도 있고, 수학시간에 배운 계산식을 활용할 때도 있다.
(중학교 1학년, 여)

나) 연계활용가능요인

(‘종합’ 수업의 경우)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문제의 발견 및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특정 과목 또는 교과서가 자신들을 ‘공부’ 라는 틀 속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면담자 : 다른 수업에 비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나?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나?

학생 1 :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여)

다) 발표방식관련요인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발표가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한 발표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표의 형식에 있어서도 발표자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청중(듣는 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면담자 : 만약에 이 수업에서 알게 된 것을 남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발표해보고 싶은가?

학생 1 :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기분으로 발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표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얘기가 친구들에게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1학년, 여)

학생 2 : 사진과 같은 영상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싶다. 만약 종이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경우에는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잘 보이게 글씨를 크게 쓰고 싶다. (중학교 1학년, 여)

⑤ 학교지원영역에 대한 분석

학교지원영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학교지원요소, 학교지원요구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학교지원요소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교는 단순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회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학습의 과정이 교사에게서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담담자 : 학교가 내가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

학생 1 : 공부이외에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가 좋다. (중학교 1학년, 여)

나) 학교지원요구요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와 청소년들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청소년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면담자 :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학생 1 : 지금까지 크게 불편하게 느낀 적이 없다. (중학교 1학년, 여)

⑥ 역량개발관련요인에 대한 분석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량개발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크게 관계역량영역요인, 역량개발방법요인, 역량개발지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관계역량영역요인

문제발견은 자율과 자기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집단학습은 협동심과 청소년들간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표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툴(tool)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담당자 : 담당하고 있는 수업/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어떤 부분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 사 : 문제발견은 자율과 자기관리와 관련이 있다. 집단학습은 협동심과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툴(언어) 활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교사, 남)

나) 역량개발방법요인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즉 과제의 설정부터 조사방법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담당자 :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수업/활동프로그램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 사 : PBL(Project Based Learning) (중학교 교사, 남)

다) 역량개발지원요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청소년들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교차(cross) 교육과정을 통해 과목 간 소통 및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담당자 :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무엇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 사 : 신뢰관계, 교차 교육과정, PBL (중학교 교사, 남)

⑦ 핵심역량영역별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교사인식

핵심역량영역별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교사인식은 자기관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자기관리영역

자기관리영역은 크게 학습에서의 자율성수준, 교사지원수준, 학습참여수준, 피드백제공수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교사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네 영역의 중요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전항목 5)을 보여주고 있으나, 적용도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 학습목표수립(3)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데 시간을 보낸다(3),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3)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의 적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사는 역량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 이번의 조사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이기에 교사의 의도가 학생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영역

다른 사람과의 관계영역은 협동성, 학생간 상호작용성, 교사학생간상호작용성, 의사소통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네 영역의 중요도에서 교사의 인식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전항목 5) 나타났으나, 자신들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할 시간(2), 학생들의 개발을 위한 행동, 기술, 태도에 대한 교사의 고민 정도(2) 그리고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학습(2), 상황별 의사소통방식(2)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개발에 있어 교사들의 기술적, 방법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요청되며,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학습방법(토론 및 발표식 수업)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영역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영역은 정보접근, 정보이해, 정보활용으로 나누어 학습과정에서의 중요도 및 적용도에 대한 교사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세 영역의 중요도의 인식에서는 전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준(전항목 5)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들의 정보습득 및 이해(3)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며, 이들이 토론 및 발표식 수업에 대해 충분히 적응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사립중학교(쇼케이중학교)에서의 교사 간담회, 교실학습 관찰 및 교사와의 면담자료, 학교 안내책자, 수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실학습 과정을 분석한 결과, 발표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친구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 새로운 견해의 형성 그리고 열린 토론 자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역량개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안내책자에 학교의 교육목표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PBL(Project Based Learning)식 학습방법의 적용인데, 이를 위해 독해 리터러시(literacy), 수학리터러시, 과학리터러시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가 높은 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등(실제로, 매년 교토(京都)에 있는 공립호리가와(堀川)고등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등 교사들의 연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이 학교는 대학과의 연계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대학 의학부(국립 도호쿠(東北)대학 의학연구과)와의 연계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업 방식은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의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김기현·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Stevenson, D.L. and David P. Baker. 1992. "Shadow Education and Allocation in Formal Schooling: Transition to University in Japa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639-1657.
- 勝俣暎史(2000), 「生きる力」の概念と構成成分, コンピタンス心理学の視点から, 熊本大学教育実践研究.

진 · 로 · 체 · 험

홍콩의 청소년창업지원프로그램
S.P.O.T (Tsuen Wan Youth)

권진화 ³⁾

→ 개요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전개하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트라우마’의 과정과 ‘중산층의 몰락’을

탈피하기 위한 각국의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하자센터의 「10대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의 참여올증대로 ‘일일직업체험30 프로그램’ ‘일취월장 직업 프로젝트’

‘잡 쉐도잉 커리어 워크’ 등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참여하는 성공프로젝트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공요인의 배경에는 ‘사회적기업’에서 해결방안을 찾은 것으로 정부나 기업 혹은 시민 사회단체(NGO), 비영리단체(NOP)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공공적 문제들을 찾아 기업가적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안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년실업문제가 곧 청소년문제라는 점에서 착안되어 ‘미래의 직업’을 창조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하자센터의 청소년창업센터 전환을 앞두고 홍콩의 S.P.O.T (Tsuen Wan Youth)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청년 실업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Tsuen Wan 지역 소개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이나 타국에서 입주한 신규입주 가족으로 구성된 Tsuen Wan은 1일평균 250명의 거주 이동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체 홍콩인구의 4.2%에 해당하는 288,800명의 인구에 94,912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1가정당 평균 3명의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가족의 평균소득은 H\$22,772로 가족 소득액에 따른 구성 비율을 세밀히 분석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월평균 소득액	구성비율
저소득층	H\$10,000 미만 (한화기준: ₩1,499,999미만)	24%
중산층	H\$10,000이상 H\$30,000미만(₩1,500,000~4,499,999)	43.9%
상위층	H\$30,000 이상 (₩4,500,000이상)	32.1%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무국, 선임행정원

홍콩의 중·상층 비율이 높은 Tsuen Wan의 가구 구성원을 좀 더 세밀하게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14세미만은 41,495명, 15~24세는 31,641명, 25~34세는 50,101명으로 이는 전체 Tsuen Wan 인구의 42.68% 인 123,237명이 S.P.O.T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Tsuen Wan S.P.O.T의 운영

홍콩 내 18개 지역구 중 Tsuen Wan에는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의 중심과 지하철역 인근에 각1개씩 위치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기회·훈련양성」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본 시설에는 총24명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수요조사를 통한 파트너를 지역사회·가정·학교로 구성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각종 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리더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청소년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프로세스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업적 계획에 의하여 1년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을,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한 지식전달과 방법론을,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하여 청소년의 감정과 육체적인 필요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의 흐름속에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1] 직원의 구성 및 역할

구 분	인원	구성비율	역 할
팀리더	3명	13%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조사(청소년분석)를 통한 파트너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해 낸다.
대외활동	6명	26.1%	
방과 후 교사	2명	8.7%	
행정관리	5명	21.7%	
정부파견관리자	7명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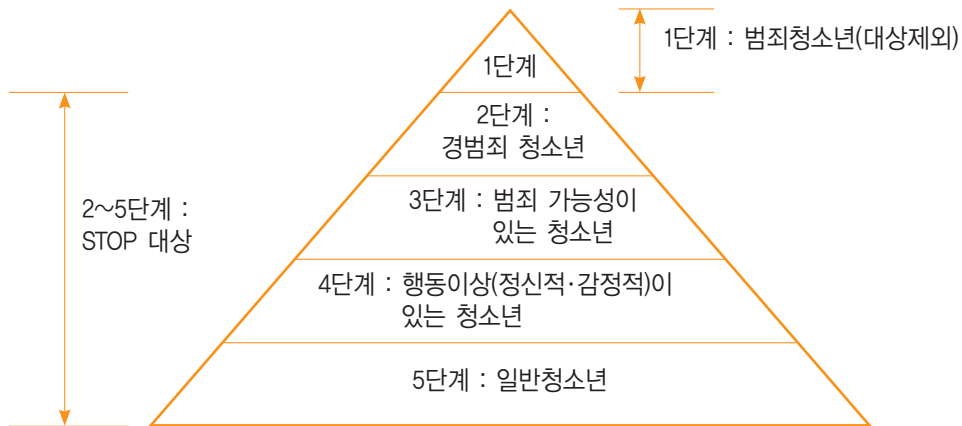
그러나, 프로그램활동의 운영비구성 측면에서는 최초 프로그램을 도입하던 당시에는 100%정부 보조금으로, 1999년에는 정부보조금이 70%, 2009년 현재는 50~60%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 S.P.O.T 프로그램 소개

S.T.O.P의 프로그램은 범죄 청소년은 물론 범죄자 가족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되어지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직업체험활동 및 일정 규모의 실내체육센터시설을 갖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1개 학교에 1명의 봉사자를 상근직원으로 배치하여 직접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은 교도소나 개인의 지원을 통한 민·간·협, 비영리단체, 사업체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1) 프로그램 참여대상의 분류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으며, 대상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총5단계로 분류하여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



2) 프로그램별 종류

- ① 컴퓨터교육 : 1층에 1개실을 마련하였으며, 컴퓨터교육 관련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기타 관련시설 및 관련비용은 자선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부금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실내 스포츠센터 : 정부, 지역 및 민간단체, 지역의 기부자 등이 동참하여 설립하고, S.P.O.T에서 운영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 : 매주1회 주말 1시간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2,000명의 청소년들이 총12,026시간을 간접체험을 통한 사회경험에 참여하였고, 정부 및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까지 본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 지역에서는 10개 이상의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소통관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임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④ 청소년 창업사업 : 청년실업 해결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콩사회의 중·단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계획 수립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

→ Tsuen Wan S.P.O.T의 대표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사업』

1) 도입배경

2000년 이후 홍콩사회는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등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사업창업이 거론되어지고 있으며, 사업창업을 통하여 이익을 구현하고, 이익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S.P.O.T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정부와의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4개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인 청소년과 기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그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창업사업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개인특성에 따라 맞춤 형식으로 취업준비 및 사례 관리를 하는 취업준비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청소년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과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듈②는 필수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개인별 관심분야 등을 토대로 적정한 프로그램 모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례관리자들이 각 개인별 특성에 맞춰 장기적인 직업설계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성하여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그 직업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기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개 모듈은 아래와 같다.

- ① 리더십, 자기관리, 팀워크형성훈련과정
- ② 취업정보사냥과 인간관계형성 기술과정
- ③ 컴퓨터 활용법 훈련과정
- ④ 구체적인 직업별 기술훈련 과정

[직업별 기술훈련 과정]

가) Cafe 21

- ① 사업개요 :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서빙하며 현장 경험을 익히고, 전문가로부터 운영관리 기법을 전수받게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서비스 방안을 구상토록 하여 간접경험을 통한 실제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S.P.O.T의 지원내역
 - (1) 시장분석을 통한 점포의 위치선정
 - (2) 매스컴을 통한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소개함으로써 홍보
 - (3) 점포내 인테리어 작업을 통한 미팅장소 공간을 확보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대용 간단 메뉴를 선정
- ③ 기대효과 : 미취학 청소년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게는 간접경험을 통해 점포관리 · 운영 및 경영기법을 전수하여 창업 및 구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S.P.O.T은 임차료 수익 및 판매수익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다.

나) Project Rebook (도서점)

- ① 사업개요 : 개인별 주거공간이 넓지 못한 홍콩사회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서보유자가 많은 홍콩에서의 문제점이 중고책 처분에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보다는 장애청소년의 취업 및 간접경험의 장을 마련하여 정리방법 및 의사소통 기법을 익히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S.P.O.T의 지원내역
 - (1) 시장분석을 통한 점포의 위치선정
 - (2)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시설물 설치 및 예산지원 강구
 - (3) 신문을 통한 홍보
- ③ 기대효과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도서정리 방법이나 자료관리 기법등을 전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대화기법이나 매너 등을 익히도록 하여 대인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시민에게는 기부문화를 형성하도록 기획하여 중고서적을 제공하는 자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 중고서적의 처분이 아닌 책을 나누어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도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도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며 S.P.O.T에서는 중고도서 판매 이익금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다) Image 21

- ① 사업개요 : 학습부진 청소년 중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학습의욕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안해 낸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도록 한다.
- ② S.P.O.T의 지원내역
 - (1) 학습부진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원인을 분석
 - (2) 사진촬영, 영화, 디자인분야에 관한 정보물 습득
 - (3) 장비 및 스킬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프로그램화
- ③ 기대효과 :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섭외하여 직접 함께 토론하고 관련 장비의 스킬교육과 장비체험을 실습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연계하게 되며,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센터 관련 사업의 홍보작업을 일부 병행하여 효율적인 홍보 매체물 제작의 재원확보를 마련하게 된다.

라) Food magic 외식사업

① 사업개요 : 본 프로그램은 홍콩인구의 40%가 비만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서, 바쁜 스케줄의 일상에 따른 즉석 조리요리의 편의성에 익숙해진 홍콩 사회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도출된 신규 아이템 사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외식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S.P.O.T의 지원내역

- (1) 시장분석을 통한 메뉴개발 및 재료선택
- (2) 「재료구입→재료세척→조리준비→BOX포장→배달」의 절차별 일자리 창출
- (3) 포장시 영양소분석과 조리법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 동봉
- (4) 사후 관리를 위한 의견조사 병행

③ 기대효과 : 창업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고객만족의 분석 작업부터 병행하게 함으로서 고객만족의 간접경험을 경험하게 하고, S.P.O.T에서는 전공분야를 필요로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블로그 및 신문소개 등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확대홍보 방안을 병행하며 사업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들의 생애 첫 직장과의 일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자기 계발과 세계에 대한 학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등 더 많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앞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청소년들의 미래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을 '사회적 기업가'로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때가 도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처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확한 통계데이터와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기호별·대상별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학교·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평생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창의적인 사람이 선도하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시장까지 진출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육성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자료

- <http://hkfyg.org.hk/>
- <http://yse.hkfyg.org.hk/foodmagic>
- HKFYG – November2009–January2010
- We're your nutritionist, 2009.11.28.
- The hong kong award for young people. 2009

→ 개요

캐나다정부는 1997년 2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전환(school-to-work)을 통해 건강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Youth Employment Strategy(이하 YES), 즉, ‘청소년고용정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장차 학교에서 일터로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RSDC(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부)는 그 이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던 청소년고용지원 사업을 청소년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YES)으로 종합화하면서 3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였고, YES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8년 기준, 청소년고용정책 총 예산은 \$ 342M(약 3,420억원)이다. YES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모두 11개 부처로서 예산의 73%는 HRSDC에, 27%는 나머지 10개 부처에 배분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 청소년고용전략의 목표

- 청소년의 필요를 확인하고 청소년에 관한 이슈들을 지역사회 조직과 공유하며, 직업에 대한 정보, 직업에 필요한 기술, 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청소년들에게 함양시키도록 한다.
-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기술, 국제 무역과 개발,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경험은 물론 그들의 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생산성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의 팀의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중등학교 재학이상의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특히 여름 일자리(summer employment) 창출을 통하여 미래 노동시장의 세계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HRDC, 2008).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청소년 고용전략의 전달체계

YES의 전달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연방정부의 사업지원계획과 관련예산은 전국 300여개소에 있는 Service Canada로 전달된다. Service Canada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을 실행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한다.



[그림 1] YES의 전달체계

청소년이 청소년고용전략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Service Canada Centre for Youth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소개 받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청소년고용전략 전용 웹사이트에도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고용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고용전략을 통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지원받는 고용주들은 많은 경우에 Job Bank Web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HRDC, 2008).

5) Service Canada Centres for Youth(SCCY), Service Canada는 HRSDC 하부기관으로 전국에 300개 정도 분포하고 있다. 오타와시에는 5개, 온타리오주에 80-100개 정도가 있다. Service Canada는 노동부사업 외에 다른 부처의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다(2008, HRSDC 면담자료).

→ YES의 3가지 사업유형

대 상	Skill Link	Career Focus	Summer Work Experience
청소년 ⁶⁾	-학업에 재학 중이 아닌 사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학교 중퇴자, 농산 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장애인, 편부모, 원주민, 신규 이민자	-중등학교 졸업자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2~3학년 이상의 재학생 -대학을 졸업한 지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자	-중등학생이나 중등학교 졸업자 -full-time 학생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청소년
목 적	학교나 노동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기초기술과 유의미한 직업경험 제공	숙련기술을 가진 청소년들이 고용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등록금을 벌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청소년 1인당 2,200만원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조직을 지원	6-12개월 지원	6-10주간 재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에게 임금지원
총예산 ⁷⁾	\$ 149.4M (1,494억원)	\$ 17M(170억원)	\$ 101M (1,001억원)
참여부처	3개 부처	8개 부처	5개 부처

HRSDC는 Skills Link, Career Focus, Summer Work Experience이라는 세 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청소년대상층을 달리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Skills Link는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령, 고등학교 중퇴자나 한부모, 캐나다 토착민(원주민), 장애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Summer Work Experience는 중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중등학교 졸업생에게 여름동안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해 5월에서 8월사이의 여름 방학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6) 지원자격은 15세에서 30세 미만 자로서,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자, 난민권자이거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고용보험혜택(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임.

7) 2008년 예산임(HRSDC, 2008, 내부자료).

Career Focus는 중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청소년에게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소년글로벌 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련부처인 Canadian International Deveopment Agency가 이러한 고용전략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HRSDC, 2008).

사업의 목적과 대상, 지원내용은 공통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업내용은 수행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사업별로 수행부처의 사업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부처별 사업내용

1) Skills Link

Skills Link는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결정하도록 도우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직업을 구하든 아니면 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YES 프로젝트 하에 Skills Link 관련 사업을 하는 연방 정부들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부처별 skill Link 사업내용

사업 파트너 (연방정부)	사업 내용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 First Nations와 이뉴잇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주택 산업에서의 장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건설에 관련된 교육들이 제공되며, 주택에 관한 행정업무, 건설, 재개발, 청소, 고객 상담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 - 15세에서 30세 미만자여야 하고 First Nations 이나 이뉴잇 출신이어야 하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실업의 상태인 청소년이나 청년 - 이 중에서도 미혼 부모이거나 문해력이 낮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에 우선순위가 주어짐.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이나 기업의 고용주의 경우는 참가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참가자에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통근비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는 고용주나 회사라도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될 수 있음. - 취업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기간은 일에 따라서 다름. -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는 스폰서들은 고용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야 함.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프로젝트들은 지역사회에 필요에 기반을 두고 특정 참가자들을 대상 - 장기고용성, 스폰서들의 기여정도, 재정지원정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운영
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First Nations and Inuit Youth Work Experience Program : First Nation과 이누잇 정부들과 조직들은 다음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 멘토링이 가능한 실무 경험 제공 - 기본적인 고용가능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증대, 가령,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능력, 협동 능력 -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한 열쇠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궁극적으로는 학교로의 복귀를 통하여 고급인력 양성) -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데 사업계획서는 이상의 네 가지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활동이나 사업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언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나 성과물에 대한 제시도 포함되어야 함. - 남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1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비영리단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는 100%의 임금을 지원받으며 민간 영역의 경우는 50%까지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비영리체와 민간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100%의 임금지원 - 청소년을 고용한 기관은 매해 4월 말까지 평가서를 제출 -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연도 재정 지원을 불가능 -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를 매해 3월말까지 제출 First Nations and Inuit Career Promotion and Awareness Program : - 원주민과 이누잇 출신 청소년들에게 해당 -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고 21세까지의 중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에게 참가 자격

2) Career Focus

Career Focus는 캐나다 국내와 해외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해외에서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참가는 청소년들이 고급기술을 발전시키고 향후 자신의 취업에 커다란 장점이 될 만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게 할 것이다. Career Focu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은 워크숍, 세미나,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참가자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원할 수 있다.

Career Focus를 운영하는 연방조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처별 Career Focus 사업내용

사업 파트너(연방정부)	사업 내용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 농업식품청에서 주관하는 Career Focus 프로그램은 농업&식품 과학과 수의학 분야의 최근 졸업생을 고용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십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고 매칭펀드와 연계하여 각각의 프로젝트는 만2천달러를 지급 -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전역에 총 80개의 인턴십을 운영, 12개월이 최대 기간이고 최소 참여기간이나 의무 기간은 없음 - 농업과 식품과학, 수의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졸업한지 3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청년으로 30세 미만인 사람 - 생물학, 농업, 수의학, 응용과학등의 전공자 -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 -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참가자의 사정에 의해서 1년만에 종료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 해당기관은 나머지 1년의 인턴십 기간을 채워줄 다른 인턴을 반드시 찾아야 함.
Canadian Heritage	-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Full-time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실업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 가능 - 기존의 어떤 YES 프로그램에도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 인턴의 종류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 국내와 해외에서 가르치는 것과 캐나다의 문화를 보전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도서관, 예술 단체, 방송국, 교육기관 등에서 전시와 마케팅 등의 활동의 두 가지가 있음.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The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 (IYIP) : - IYIP는 19세에서 30세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원자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적성을 개발하고 CIDA가 표방하는 국제구호와 국제 지원, 개발에 의미있는 고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Environment Canad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Youth Corps : - 과학과 환경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턴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여명의 대학생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있음. - 파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Science Horizons Youth Internship Program : - 과학분야에서의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 대학과 민간단체를 통하여 대학생을 선발하고 관련 기관으로 과학기술과 현장지식을 학습하기 위하여 캐나다 전역으로 파견 - 참여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
Industry Canada	CAP Youth Initiative : - 15세에서 30세의 청소년과 청년에게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사회내 ICT개발과 보급과 관련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 Summer Job Experience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 Computers for Schools (TWEP) : - 컴퓨터 관련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들을 고용하여 캐나다 전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컴퓨터의 프로그램 보급과 고장이나 수리를 위한 프로그램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 연구에 관계된 전공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별, 프로그램별 별도로 지원자 선발, 지원
Natural Resources Canada	- 캐나다 전역의 자원개발과 보존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활동을 위하여 관련 대학생과 졸업자를 선발, 연수, 지원
Service Canada	National Career Focus : -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재정지원과 대학생들에게 청소년고용전략을 알리고 수행하게 하는 행정적 업무를 위하여 대학 졸업생을 선발하여 전국의 Service Canada 센터에 배치 Regional Career Focus : 지역사회의 고용주와 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필요한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 선발하여 단기간 고용

3) Summer Work Experience

Summer Work Experience는 중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진학을 위한 상급학교에 진학중인 청소년들에게 여름 일자리 즉,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단순한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여름방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세계를 탐구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여름 방학의 단기 일자리를 통하여 직업에 관한 최신정보를 얻음은 물론 노동법,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약, 다른 연방정부에서의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Summer Work 프로그램 파트너들별로 프로그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부처별 Summer Work Experience 사업내용

사업 파트너(연방정부)	사업 내용
Canadian Heritage	- 재학생들과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기 위하여 여름 단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을 테스트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제공 - Summer Job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비록 자신의 제2외국어를 사용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박물관에서 혹은 원주민 센터에서든, 또는 해외에서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또한 고용주들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쟁력 있는 기술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을 고용함으로써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음. -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고용주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중등학교와 중등학교이후 대학진학을 위한 상급학교에 대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방학동안 직업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우며, 임금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 - 조직, 공공영역, 50명 미만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15세에서 30세의 학생들에게 여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 - Service Canada Centres for Youth는 청소년들과 고용주들에게 여름 단기 취업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 캐나다 전역을 통하여 연계 - 이 서비스는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제공되며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대일 대면 상담과 정보제공, 이력서 작성법, 노동법, 인터뷰기법, 최신 직업정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약, 각 연방정부별, 지역별 청소년 취업프로그램들을 제공

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First Nations and Inuit Summer Student Employment Opportunities Program :

- 원주민과 이누잇족 출신의 중등학교나 대학을 위한 상급학교 재학생중 15세에서 30세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학생들은 full-time으로 등록 중이거나 다음해에 full-time으로 복귀할 예정일 경우에 참가자격이 주어짐.
- 원주민과 이누잇 정부와 조직들은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기관, 사업체는 다음의 목적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소개
 - 참가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명시
 -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 제시
 - 소요 비용
 - 프로그램 종료 후 기대 효과
 - 양성 평등
 - 여름 일자리는 최소한 80시간의 시간을 제공해야 함.
 - 임금은 최소 임금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높아야 함.

First Nations and Inuit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

- 원주민과 이누잇족 출신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특히 교육과 경력으로서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직업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함양하여, 좀더 많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함.
-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문화와 기술에 대한 보전과 심화교육도 프로그램에 해당
- 다른 어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매해 4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해 재정지원에 불이익

Industry
Canada

The Community Access Program (CAP) Youth Initiative :

- CAP의 목적은 노동시장으로서의 원만한 전환을 하기 위한 일에 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
- 또한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의 고용능력과 직업 유지능력을 함양
- 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도움이 되는 ICT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Industry Canada	Student Connections : - 학교와 직장을 연결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진학을 위한 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Student Business Advisors(SBA)로 고용하여 자신의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지불받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원 - SBA가 되기 위하여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 재학생이어야 하고 특히 IT관련 전공, 컴퓨터관련 전공, 인터넷과 관련된 전공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SBA 자격으로는 대면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프리젠테이션 기술등도 요구 - 다른 YES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5세- 30세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원가능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영주권자, 시민권자, 난민의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 상급학교로 되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분명한 청소년 등
Parks Canada	-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하는 프로그램 제공 - 중등학교 재학생과 그 이후의 연령대(대학 재학생까지)가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과 역사유적지가 프로그램의 장소 - 매년 캐나다 전역에서 10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로 5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되고, 해당 공원과 유적지에서 지원, 관리, 안내, 활동보조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역사 유적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경험 - 참가자격으로는 full-time 학생이거나, full-time 학생으로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인 청소년, 각주의 최저 노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해당되며 중등학교나 대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가운데는 협의를 거쳐 기간제(part-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

캐나다의 YES는 청소년의 진로활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준다. 캐나다 연방정부에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없다. 청소년 및 교육에 관한 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는 청소년의 고용 및 직업체험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YES 이전에도 각 부처는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YES는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종합한 것일 뿐이다.

캐나다의 YE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사점은 정부 각 부처가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미래 노동인구의 격감을 예상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입시에 집중되어 있다. 사교육, 조기유학 등 교육투자 과열과 과잉이 사회의 주도적 흐름을 이루면서 투자 대비 성과, 회수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다양성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분야를 집적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가 나서서 산하 관련 시설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캐나다 각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방향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각 부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공원 등이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인세대에 비해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특화되어야 하며 특히, 위기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캐나다 YES는 대상별로 특성화되어 있다. 캐나다 원주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Skill Link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1인당 지원비용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며 지원 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장기간이다. 청소년별로 사례관리자가 있어 청소년의 요구를 사정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과 생활습관 등을 훈련하고 직장을 연결해 준 후 이를 추적하여 점검하고 있다. 성인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다문화, 탈북, 한부모, 빈곤 가족 등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래 노동인구의 격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사회 복지대상자로 전락시키지 않고 생산적 인구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진로에 대한 관심 개발, 직업을 위한 기본 기술 습득,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윤철경 · 유성렬(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07).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Canadians and/or Permanent Residents.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07).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IYIP). Guidelines and Application Form Version.
- www.vso.org.ca
- VSO(2006). Annual Review.
- VSO(2005). Partners in Change VSO Canada's Strategy for Achieving Shared Goals.
- Youth Employment Services(2007). Centre of Excellence for Youth Employment & Empowerment Annual Report 2007.
- Youth Employment Services(2007). Partnership Invitation When Youth Work Communities Work.
- HRSDC(2008). Youth Employment Strategy(YES).
- YES(2008). Current YES Structure.

진 · 로 · 체 · 험

프랑스의 청소년 작업장
Chantiers de Jeunes

이혜연 ⁸⁾

→ 개요

| 청소년작업장이란 무엇인가

Chantiers de Jeunes는 프랑스에서 1920년경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작업장이다. 청소년작업장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부터 30세까지이다. 사전교육 없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종교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차별 없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활동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정비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구체적인 일을 실행시키고, 기술을 배우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작업장은 기업이 아니며 휴양지도 아니다. 이곳은 기술적, 교육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만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운영된다.

| 작업장(Chantier)의 여러 유형

다음과 같이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다양한 활동영역에 작업장이 구성되어 있다.

1) 농촌시설의 개선

- 시골길 포장하기
- 전통가옥의 보수와 개조
-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 사원의 보수
- 사회경제 연구의 작업장

2) 자연보호

- 녹지대의 보존과 정비
- 공원과 자연보호 특별구역의 정비
- 하천 청소와 정비
- 환경에 관한 학습 작업장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연구위원

3) 건축 유적의 보존

- 고고학상의 발굴과 공사
- 역사적 건축물들의 복원
- 고문서 탐구
- 역사학습 작업장

4) 스포츠, 사회문화 그리고 관광 시설들

- 운동장 정비
- 젊은이들의 숙박시설 정비
- 휴양지 정비
- 여가활동 시설 정비
- 하이킹과 승마를 위한 오솔길 만들기

5) 역사적 성격을 띤 작업장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민 노동자들, 노년층, 신체 장애인들)의 거주양식과 삶의 양식 개선



청소년작업장 사례 :

Chantiers de Jeunes Provence Côte d'Azur⁹⁾

이 기관은 협회(association)의 성격을 갖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으로 프랑스 남부의 니스와 칸느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방스 알프스 꼬다쥐르 (Provence Alpes côte d'azur)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방 청소년들은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 활동목표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과 여가생활의 신체적 정신적인 보호를 위해 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이러한 청소년작업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활동은 단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법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활동인솔자어나

9)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요일, 주말 그리고 학교 방학 기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진행자들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진다. 이 활동은 정부의 주 담당부처인 청소년·스포츠부와 다른 청소년 관련 부처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 작업장은 13세에서 17세까지 남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물론 프랑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작업장은 종교, 정치, 민족, 국가를 초월한 단체활동의 모임으로 다문화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풍부함은 물론 서로의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육과 실험의 장이다.

1971년 이후 이곳은 교육, 오락, 현장실습 그리고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9,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가정과 학교를 떠나 조상전례의 풍습과 인간이 지닌 창조력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또한 이 작업장은 이곳 활동이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뜻있게 활용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참가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기관의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회환경에 있는 청소년들과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생활을 경험토록 한다.
- 3) 청소년 자신과 사회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방학시간을 제공해 준다.
- 4)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일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 준다.
- 5) 스포츠와 문화 등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 6) 새로운 발견을 체험토록 한다. 타국가나 타지방의 방문을 통해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모습과 생활방식을 알게 해 주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 활동내용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이나 주말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기관의 중요한 활동개념이다.

체험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생활과 유익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단체활동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각자의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1) 활동분야 :

- 문화유적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수작업
- 환경보호작업
- 사회-문화와 여가 장비의 정비
- 사회입문활동
- 단체진행자 교육
- 문화유적반
- 국제간의 교류

2) 활동장소

① 르 포 후와얄 (le fort royal)

성녀 마가렛트 섬은 칸느(Cannes)에서 배로 15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르 포(Le fort)는 17세기 철의 마스크(Masque de Fer)라는 감옥이 있었던 장소로 유명하다.

오늘날은 이 역사적인 장소를 1년 내내 단체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젊은 청소년들은 단체활동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 식사를 담당한 청소년들은 칸느로 장을 보러 나간다. 저녁식사는 이곳 식당에서 준비하게 된다. 숙박은 한방에 6개에서 8개의 침대가 준비된 단체 기숙형태로 한다.

② 라 베르즈리 뒤 후웨 (La Bergerie du Rouget) : Toussaint 방학프로그램 장소

후웨(Rouret) 마을은 칸느와 니스 사이 알프스 마리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0여 킬로미터의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다. 숲 안에는 19세기 때 양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지역의 한 협회에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캠핑카와 같은 개념의 이동주택에서 숙식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장보기, 식사준비 그리고 작업 활동 등에 참가하게 된다.

③ 청소년 작업장 본원 : 토, 일, 수 요일 프로그램 작업장

이 작업장은 이 기관의 활동을 주관하는 협회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칸느에 위치해 있다. 주로 청소년 활동장소로 쓰이며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장은 내부를 다시 수리하였으며 아직도 가시덤불을 치우고 청소 할 일이 남아 있다.

④ 무앙 -샤르뚜 (Mouans-Sartoux) 운하 :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장소

무앙 -샤르뚜 (Mouans-Sartoux)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운하는 무라송(Mourachone) 강과 후(Foux)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어 칸비에르(Canebiers) 평야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운하는 예전에 여러 장소에 물을 대기도 했다. 작업장은 이 운하와 후가 연결되는 곳에 마련되어 있다.

⑤ 까리그나노 (Carignano)

이태리 토리노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8,500명의 주민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아치형 모양의 장식으로 꾸며진 집들로 경치가 아름답고 풍부한 바로크 건축 양식이 눈에 띄는 지역이다. 청소년활동 협회인 지오바니 인시엠 온루스 (Giovani Insieme Onlus) 기관은 옛날 군인들이 있던 병사를 개조 보수하여 현재 청소년 활동 협회와 청소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단체생활과 장보기, 식사준비, 그리고 작업장을 보수 정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옛 병사에서 숙식을 하며 아침에 5시간 작업장 활동을 한다. 또한 이 지역을 관광하고 문화와 스포츠 여가 활동에도 참가한다.

⑥ 옛 작업장 알렉산드리아 (Un Ancien chantier : Alessandria)

이태리 피에몽(Piemont) 지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9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작업장은 특히 노인들을 위한 문화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들은 이 노인센터 내 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벽화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작업장 외부와 정원 그리고 녹지대 정비작업 활동을 한다. 청소년들은 마을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기숙하며 식사는 문화센터에서 준비해 준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스포츠와 예능활동도 겸하고 있다.

⑦ 옛 작업장 알비아노 (Un ancien chantier : Albiano)

알비아노는 토리노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작업장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활동과 여러 분야의 활동이 있다. 청소년들은 정원가꾸기, 온실보수, 과일 수확 등 주로 이 지역의 일에 참가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을 받는 협회는 청소년 그룹들의 숙식을 책임지고 청소년들은 단체 활동인 장보기, 식사준비, 지역의 보수 활동 등에 참가하게 된다. 이곳 역시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여가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다.

3) 활동기간별 활동내용¹⁰⁾

① 학기 중 수요일,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

- 10월 7일 (수요일) 페달보트(pedalo) / 작업장
 - 10월 10일 (토요일) 작업장 / 활동
 - 10월 11일 (일요일) 단기프로그램 / 활동
 - 10월 14일 (수요일) 낚시/ 작업장
 - 10월 17, 18일(주말) 르 포 후와얄 (le fort Royal) 프로그램
 - 10월 21일 (수요일) 산악줄타기 (acrobranche) / 활동
 - 12월 2일 (수요일) 페인트 볼 (일종의 전쟁놀이)/ 작업장
 - 12월 5일 (토요일) 작업장/ 활동
 - 12월 6일 (일요일) 단기 프로그램/ 활동
 - 12월 9일 (수요일) 시네마/작업장
 - 12월 12, 13일(주말) 르 포 후와얄 (le fort Royal) 프로그램
 - 12월 16일(수요일) 볼링/작업장
 - 1월 6일 (수요일) 레이저탐색(laser-quest)/ 작업장
 - 1월 9일 (토요일) 작업장/활동
 - 1월 10일 (일요일) 단기프로그램/활동
 - 1월 13일 (수요일) 축구/작업장
 - 1월 16, 17일(주말) 르 포 후와얄 (le fort Royal) 프로그램
 - 1월 20일 (수요일) 산악 자전거(VTT) /작업장
 - 1월 23일 (토요일) 작업장/활동
 - 1월 24일 (일요일) 단기프로그램/활동
 - 1월 27일 (수요일) 양궁/작업장
 - 1월 30일 (토요일) 작업장/활동
 - 1월 31일 (일요일) 단기프로그램/활동
- * 양궁과 페달보트는 5유로, 산악줄타기와 페인트볼은 10유로
- * 주말 프로그램 참가비 : 15유로

10)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프로그램

② 방학 프로그램

가) 뚜쌍(Toussaints) 방학¹¹⁾ 기간의 프로그램

(가) 성녀마가렛 섬(L'île de Sainte Marguerite)의 르포 후와얄(le fort Royal) :

주제: 산악줄타기 (acrobranche) : 2009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11월 2일 까지

(나) 성 라파엘에서 국제 교환 활동 : 2009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11월 4일 까지

(다) 베르즈리 후제 (bergerie Rouget)에서의 활동 :

2009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11월 2일 까지¹²⁾

나)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의 프로그램

(가) 성녀 마가렛 섬의 르 포 후와얄 :

주제: 2010년 새해 : 2009년 12월 26일부터 2010년 1월 2일 까지

| 활동방법

1) 참가신청방법

전화로 참가신청 예약하고 5일 내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50%의 선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화 예약이 끝나면 기관은 추후 제출해야 할 부모님 동의서, 건강 관련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고 참가신청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참가비 잔액은 활동이 시작되기 10일전에 납부해야 하고 지불방법은 수표를 이용한다. 이때 전염성질환 여부, 야외 스포츠기능 여부 의사진단, 식품 알레르기를 포함한 식생활에 관한 건강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후 기관은 활동 당일의 프로그램시간과 필수지참물 등을 알려준다.

※ 이 활동은 가족수당 기금의 바캉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2) 참가비

활동 기간과 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처음 가입시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 : 개인-10유로, 가족-15유로, 단체-50유로.

11) 뚜쌍(Toussaints)은 교회력에 의한 행사로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로 이날을 전후로 2주간의 방학. 프랑스는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 10월 말에 Toussaints 방학, 12월말에 크리스마스방학, 2월에 스키 방학이 있다.

12)* 참가비 : (가) (다) : 일반청소년(216유로), 꼬따쥐르 지역거주 청소년(120유로), 칸느거주 청소년(가족수당기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40유로에서 120유로까지 할인혜택), (나) : 일반청소년(270 유로), 꼬따쥐르 지역거주 청소년(150유로), 칸느거주 청소년(가족수당기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0유로에서 150유로까지 할인혜택)

※ 취소 : 가입비는 환불이 안되며 활동이 시작되는 10일전에 50%를 선불해야 하며 활동이 시작된 후에 오거나 계획된 프로그램보다 일찍 떠나도 차액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단지 이 기관 사정상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는 전액 환불이 된다.

3) 활동진행

참가하는 청소년들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은 보통 장보기, 식사준비, 작업장의 단체활동 등이 오전에 5시간 있으며 오후에는 여가활동, 저녁에는 각 활동장의 진행자들과 함께 저녁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청소년들은 각자의 작업장으로 각 각 작업장의 진행자들의 도움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선발된 2명이나 3명의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장을 봐 와 10시 30분에 있는 휴식시간의 간식과 점심을 준비한다 그리고 13시 30분에 모두 모여 점심을 한다.

점심식사 이후 오후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활동과 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낮 시간의 프로그램은 그날의 날씨, 일의 진행속도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저녁식사는 청소년들이 모두 직접 준비하며 식사는 보통 7시 30분에 시작한다. 저녁프로그램은 11시까지 진행된다.

4) 기간에 따라 다른 활동방법

① 체류활동

「테마」가 있는 체류활동은 짧은 학교 방학기간에 이루어진다. 즉, 음악, 사진, 산악 줄타기등이 초보자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다양한 단계로 진행된다. 작업활동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환경이 훼손된 곳과 지역에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전 5시간의 활동은 이곳의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다. 오후와 저녁 활동은 주로 스포츠나 청소년 그룹의 희망에 따라 장소가 가능한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② 단기활동

방학이 아닌 학기 중 오후나 주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스키, 윈드서핑, 토너먼트식 축구 등이 있어 각자 원하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담당진행자들이 있어 청소년 각자 원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③ 수요일, 토요일 프로그램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이 작업장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고 단기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용시간은 13시 45분부터 18시까지 이다.

④ 주말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일요일 오후 6시 경에 마치게 된다. 토요일 오후에는 주로 작업장 활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여가활동이 중점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주말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참가 할 수 있다.

⑤ 일요일

일요일은 주로 여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역시 단기 프로그램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⑥ 저녁

저녁에 음악회나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최소한 4명의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관람을 위한 지원을 주선했을 수 있다.(예약비와 관람비는 각자 부담)

이 작업장은 학교방학 기간이 아닌 저녁시간에(화, 목,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개방되어 학교 숙제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단기 계획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친구들이나 교육진행자나 인솔자들과 친교를 나눌 수도 있다.

| 기타

이 협회는 모든 학교 방학 기간과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의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들이 하루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활동에 참가하거나 단기간 활동에 참가 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활동은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진행되며 저녁에는 주로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거나 단기 프로그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일단 프로그램이 계획되면 각 그룹의 인솔자들이 청소년들을 맡는다.

1) 규칙

이 기관의 청소년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정부의 청소년 · 스포츠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활동기간 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 있으며, 보험비는 청소년들이 지불하는 참가활동비에 포함되어 있다.

2) 재정

청소년들의 작업활동 비용은 칸느시, 알프스 꼬파쥐르(la Région PACA(provence alpes

cote d'azur)지방자치, 청소년·스포츠부 지방부처(la Direction Rég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가족수당기금부(la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 위생 담당 지방부처(la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 알프스 마리팀 자문위원회(le Conseil Général des Alpes Maritimes),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등 정부 관련 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3) 인가

이 기관은 정부 청소년·스포츠부의 승인과 환경부의 환경보호 단체로 승인을 받은 곳이다.

4) 관리지휘

기관의 장과 인솔자들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활동기간 동안 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늘 주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5) 이 기관의 기타 활동

① 유럽청소년프로그램

이 기관은 유럽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할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매해 청소년들은 사회문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로 떠난다. 그러므로 본 기관은 프랑스 청소년과 다른 유럽국가의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회제공에 참여하고 이러한 팀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② 특별활동

이 기관은 청소년 작업장의 교육적인 목적을 기본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세밀히 기획하고 있다. 이 특별활동은 이 기관과 연결된 여러 다른 협력기관들의 요구로 구성, 실행되고 있다. (작업장 참여, 문화유산 답사반 등등 ...)

③ 작업진행자교육

이 기관은 UFCV¹³⁾ (Union Francilienne des Centres de gestion et Associations agréés)의 협력기관으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주관하는 지도자자격증 인 BAFA¹⁴⁾ (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en accueils collectifs de mineurs) 과정의 일부가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니스(nice)에 있는 UFCV (전화번호 04.92.00.55.00)에 문의하면 된다.

13)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국의 인가된 협회들의 연합단체

14) 미성년 단체활동 진행자 자격증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이란 명칭으로 1990년대 초부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터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그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10년 현재 20개의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환경, 즉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청소년활동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입시제도에 얽매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할애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활동대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준 높은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다행히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과정에 포함됨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에 따라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자율활동의 영역에서 수준 높고 체계적인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청소년작업장 활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청소년작업장은 1920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작업장 활동에는 문화유적과 역사적 기념물의 보수작업, 환경보호작업, 사회-문화와 여가장비의 정비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청소년작업장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일례로 문화유적을 보수하는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유적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작업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체득하고, 문화예술 감각을 키우며, 성취감을 느끼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터득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소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청소년작업장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여가생활도 동시에 즐기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그 활동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적이고, 단순하고, 일률적이며, 형식적이고, 교육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프랑스의 청소년작업장 활동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나라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질 높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2011년부터 시작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며 동시에 청소년들이 즐기며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승희 · 정회욱 · 이해연(1994). 지역사회봉사활동 개발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http://chantiers_de_jeunes_provence.perso.sfr.fr/

봉 · 사 · 체 · 힘

미국의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
텍사스 지역사회교육원 ISOTURE 자원봉사관리이론

서정아 ¹⁵⁾

→ 개요

텍사스 주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Texas Cooperative Extension)¹⁶⁾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¹⁷⁾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은 Texas A&M 대학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질 높고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적 교육기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텍사스 주 내에 250개의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사무소를 통해 616명의 교육원 에이전트, 343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텍사스 카운티 거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교육원은 표적화된(targeted) 과학기반적(science-based) 교육,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청소년발달(youth development)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이슈에 대처하고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교육원 전략계획 중 하나는 텍사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productive), 긍정적이며(positive), 갖추어진(equipped) 생활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관은 보다 나은 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을 위해 보다 토착화된 강력하고 순환적인 욕구 사정(need assessment)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수행한다. 이 사실은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Texas Cooperative Extension)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관리자를 위한 자체적인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중요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과정에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리자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와 관련한 그들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상되는 비용을 예방,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텍사스 협동 지역 사회교육원 자체의 운영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효과적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배치, 유지가 가능케 되었다. 자원봉사자를 기관에 적극 활용하는 점은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의 기관 목적 및 목표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16) 협동 지역사회교육원 서비스(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는 미국 농업부(USDA)의 지역사회교육원 서비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기반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조직으로 기획된 것으로 주로 비공식적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주로 농업과 식품, 가정과 가족, 환경, 지역사회 경제개발, 청소년 그리고 4-H에 관한 것이다. 미국 농업부의 국립식품농업연구소가 Smith Lever 법률에 의거 주정부와 카운티정부, 그리고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을 관리,관할한다.

17)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http://www.volunteermatch.org> 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자원봉사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한다.

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¹⁸⁾

|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 자원봉사관리이론¹⁹⁾

자원봉사관리이론은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관리사이클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그림 1] 자원봉사 관리 사이클(Volunteer Management Cycle)

1) 계획- 모든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성공의 필수요소

- 자원봉사 인력(buy in)을 획득
- 자원봉사 배치위치(position)을 디자인
- 자원봉사를 위한 지원양식 마련
- 자원봉사를 위한 지원정책과 절차의 개발
-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을 교육

18)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의 조직 목표와 목적 세부내용에는 책무성(Accountability), 정보기술활용(Information Technology), 지역주민을 위한 전달체계(Delivery system for urban audience),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직원에 대한 인정과 보상(Employee recognition and rewards),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재정·자원관리(Financial and Resource Management),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내부적 소통의 증진(Internal communication), 자원봉사자 활용(Volunteerism) 등이 포함된다.

19) http://nationalserviceresources.org/files/legacy/filemanager/download/06_MultiState_Conf/D2-E2cycle_one_pager.doc

2) 모집과 선정

누가,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브레인스토밍을 함에 있어 가능한 창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어디서, 그리고 언제 당신이 자원봉사인력에 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잠재적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조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

3) 지원(Support)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당신의 기관과 자원봉사자가 있어야할 위치(position)에 정보를 제공하여라.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은 당신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또한 어떠한 것이 기대되는 가에 대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혹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감독과 평가

감독과 평가는 자원봉사수행기관 당사자와 자원봉사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당신은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자원봉사자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는 당신과 자원봉사자에게 어떻게 자원봉사자 배치(placement)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혹은 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정(assess)할 시간을 제공한다.

5) 인정(recognition)

모든 시간동안 어떠한 비형식적 방식으로라도 “감사하다” 는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라.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기념(celebration) 혹은 표창(recognition event) 등을 통해 감사의 표시를 받는다. 감사는 자원봉사자에게 적합(fit)하게 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당신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의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감흥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컨대, 좋은 계획과 관리(management)를 통해서만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실제: 텍사스 A&M 대학 부설 협동 지역 사회교육원 ISOTURE 자원봉사자 관리 모델

강력한 자원봉사자 기반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기관의 미션과도 일치한다. 자원봉사자가 모든 텍사스 A&M 대학 부설 지역 사회교육원 하부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카운티 지역 사회교육원의 에이전트(agent)는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경영자이자 관리자(administrator)이다.

텍사스 A&M 대학 부설 지역 사회교육원의 자원봉사자 관리 모델은 ISOTURE 모델로 대표된다. ISOTURE 모델은 관리자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더욱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7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는 자원봉사자 발견(Identification), 선정(Selection), 예비교육(Orientation), 훈련(Training), 활용(Utilization), 인정(Recogni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로 각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따서 I.S.O.T.U.R.E라고 지칭한다(이하 ISOTURE). ISOTURE는 맨 처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Robert Dolan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71년에 4-H 청소년개발(4-H Youth development)조직의 전국단위 프로그램 리더인 Milton Boyce에 의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Boyce는 협동 사회교육원의 청소년개발활동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4-H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ISOTURE 모델은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vs 자원봉사 개발(Volunteer Development)

리더십 개발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이다. 자원봉사자 개발은 보편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선도적 역할에 있는 사람들을 주된 초점으로 한다. 효과적인 자원봉사 스태프를 유지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과업임에 틀림없다. ISOTURE 모델의 과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수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요소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발견(Identification)

발견은 구체적인 자원봉사 포지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right) 자원봉사자를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내어주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돌려주는 것,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시간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높이 가치를 부여하며, 그들의 일이 의미있고 그들의 공헌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규명함에 있어 관리자는 그들의 이익(benefit)과 기대를 고려해야만 한다.

자원봉사관리자는 프로그램의 요구를 사정함은 물론 유용가능한 자원봉사자의 유형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자원봉사 포지션의 구체적인 내용(description)과 기대, 그리고 책임에 대해 세부안을 개발하게 된다. 우선 이러한 정보가 준비된 후에야 비로소 자원봉사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다.

잠재가능한 자원봉사자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마케팅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적화된 마케팅(Targeted Marketing):

구체적인 기술이나 주제와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탐색하기 위해 적용.

나. 비표적화된 마케팅(Non-targeted Marketing):

일반적인 기술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적용. 이 접근법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안과 지역사회교육원을 위해 기꺼이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 모두를 포함.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공식적으로 모집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원봉사자 작성 양식(Volunteer Interest Form)을 기입하여야 한다. 양식은 <http://taxascolunteer.tamu.edu/vol-curriculum.htm>이나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양식은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의 유용성, 사전 경험, 흥미, 기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 등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자를 발견(identifying)하고 모집하는 때,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기관의 사명과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욕구(need)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발견할 때, 에이전트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수요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규명
-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유형을 규명
- 포지션의 기대와 책임에 대한 개관(outline)을 포함하는 포지션에 대한 세부사항 작성
- 표적화된 마케팅을 통해 구체적인 역할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 잠재적 자원봉사자 규명
- 잠재적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포지션 세부사항 공유
- 잠재적 자원봉사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
- 잠재적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원봉사 작성양식(Volunteer Interest Form)을 작성토록 함.

2) 선정(Selection)

선정은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배경에 대한 학습의 과정인 동시에 선택된 포지션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동기화하는 과정이다.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규명한 후,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만나서 각각 인터뷰를 실시해야 한다. 인터뷰의 내용은 기관전반에 거친 사항,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영역,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흥미, 강점, 그리고 잠재능력에 관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자원봉사자가 해당기관에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자원봉사자 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지만,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의 에이전트는 인터뷰 과정을 감독하고 조정해야 한다.

포지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자원봉사 포지션의 명칭
- 자원봉사 조연자(Advisor)
- 포지션의 목적
- 자원봉사자가 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Benefit)
- 자원봉사자의 책임
- 필요로 하는 자격이나 기술(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소요시간
- 유용가능한 자원과 지원

그들의 흥미, 재능, 스케줄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영역에 자원봉사자를 선정 배치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성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체크리스트

- 배경 및 신원 조회를 통해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스크리닝(screening)
- 자원봉사자의 지원양식(interest forms and applications) 등을 리뷰
- 그들의 기술, 흥미, 동기,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인터뷰
- 자원봉사자의 흥미, 재능, 자원봉사역할에 필요로 하는 유용가능한 시간을 조정

자원봉사자 배경 체크리스트 양식(Background Check Form)과 청소년보호기준법 및 지침은 <http://taxasvolunteer.tamu.edu/YPS.htm>에서 찾을 수 있다.

3) 예비교육(Orientation)

예비교육은 자원봉사자가 기관과 그들의 새로운 의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예비교육은 자원봉사자와 기관 구성원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카운티의 기관 에이전트는 기관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기관의 큰 밑그림에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부합(fit)시키도록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자원봉사자들은 각각의 스탭 구성원들의 프로그램에서의 역할과 그들의 전문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은 스탭을 지원하며 이들이 자원봉사자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예비교육 과정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그들의 활동이 기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볼 수 있기 위해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비교육 이후에 자원봉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한다.

- 기관의 사명
- 기관의 정의
- 기관과 위탁운영주체인 주립대학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 Smith-Lever Act에 관한 사항
- 위 법에 따라 기관이 수행하도록 위임된 사항
- 자원봉사 포지션의 세부업무사항에 구체화된 사항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

체크리스트

- 카운티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훈련 및 교육
- 전반적인 기관 구성원을 자원봉사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 자원봉사자에게 새로운 포지션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정
- 자원봉사자에게 포지션의 세부사항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사항을 적은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함

4) 훈련(Training)

훈련은 자원봉사자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그들의 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훈련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기술과 자부심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적절하며, 의미 있는 기술을 학습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은 또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능력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의 유형과 수요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기대, 기술의 수준과 현재의 지식에 달려있다.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효과적인 훈련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모든 학습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 영역별로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심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4-H 자원봉사자는 청소년발달에 대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기대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 관리자들은 각각의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도, 서로 다른 수준의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체크리스트

-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업무관련 훈련을 실시하라.
- 다양한 방법, 형식적-비형식적 방법을 막론하고, 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라.
- 자원봉사자에게 그들의 책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라.

5) 활용(Utilization)

활용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수행을 위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 후에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맡게 되는 포지션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자원봉사자의 노력은 그들 스스로를 가치있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또한 위임(delegation)과도 관련이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도적적인 과업을 주는 것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는 기관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에게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되며 기관의 옹호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은 그들의 소진(burnout)과 사임(resignation)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는 지도와 감독을 필요로 하므로,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의 에이전트는 칭찬 혹은 건설적 비판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대는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포지션의 세부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되고 전달 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종종 카운티 지역사회 에이전트가 그들이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또한 가끔 자원봉사자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에이전트로 하여금 정보를 보류(withholding)하거나 자원봉사자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현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클라이언트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교육원의 전문가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옹호하게 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저항(resistance)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포지션에 묘사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들에게 그들의 기술과 재능, 그리고 그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o 다른 전문 스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멘토링 받는 것을 옹호하라.
- o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라.

6) 인정(Recognition)

인정은 자원봉사자의 순수한 노력에 대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인정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인정은 존경과 감사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잘 성립된다.

인정은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첫째는 공식적인 것이고 둘째는 비공식적인 것이다. 공식적인 인정은 저녁식사나 공식연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거나 뉴스 기사에 언급되거나 특별한 펜이나 증명서나 감사의 편지 등을 선물 받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초대 받은 저녁식사 또한 또하나의 참가하여야 하는 회의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이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이나, 훈련에 참가했을 때 관심을 기울여주거나, 새로운 자원봉사자에 대한 멘토로 활동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 등을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인정은 또한 자원봉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도전이 되는 새로운 책임 과업을 부여받는 것 등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교육원의 전문가가 자원봉사자에 대해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 보상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여된 호의는 오히려 인정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o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인정해 주어야.
- o 자원봉사자와의 인간적 관계 형성
- o 자원봉사자에게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여라
- o 과장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7) 평가(Evaluation)

평가는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 혹은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자의 수행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평가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기대했던(desired)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과정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 비록 모든 자원봉사자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자의 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카운티의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전은 모든 산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평가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핸드북(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에서 Tracy Daniel Conner는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단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지 말아라.

측정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라.

둘째, 정보수집과정을 계획하라. 측정되어야 하는 항목을 위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정의 초기에 평가방법을 개발하라.

셋째, 그들의 진보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만나라. 1:1 회의, 그룹 미팅, 화상(전화) 회의, 혹은 다른 어떠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넷째, 결과를 포함하는 평가보고서를 구성하라.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노력 성공정도와 진보를 보여주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결과를 공유하라.

자원봉사자 평가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는 평가유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가)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과정평가는 자원봉사 관리자로 하여금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평가하게 한다. 이러한 평가유형에서는 자원봉사자 만족도, 투입된 시간, 필요 자원 등이 평가된다.

나) 산출물평가(Outcome Evaluation)

산출물평가는 자원봉사자가 학습하거나 실천한 것에 기반하여 자원봉사자의 수행 활동의 변화를 측정한다. 평가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 적절한 지도방법을 활용하는 것, 적절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 다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경제적 효과는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을 화폐적 가치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봉사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는 그들이 해당하는 직무를 임금을 받고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으로 환산되곤 한다.

요약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은 때때로 장애물을 운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때때로 다중적 역할이나 재원의 결핍 혹은 그들의 의미를 채우기 위한 자원의 부족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의사소통과 인정의 부족, 부적절한 자원봉사 배치, 덜 숙달된 기술과 재능, 흥미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ISOTURE 모델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텍사스 협동 지역사회교육원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관 내의 자원봉사자 관리자로서 카운티 지역사회교육원 에이전트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개발은 지속적인 활동과정이다. 강력한 자원봉사활동은 기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어떠한 기관, 시설 등에 서로 적용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지역특성상 농업을 수행하는 인구가 많은 텍사스 지역의 특색에 따라 수립된 텍사스 A&M 대학 부설 지역사회교육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가지는 의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원의 운영에 지역사회 대학이 깊이 관여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상황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사회기반한 서비스지원기관이 단지 서비스지원기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문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그 과학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학문적-실천적 시너지 효과를 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에 단기적이고 수동적이며 무계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요기관의 업무에 체계적 과정을 거쳐 투입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의 영역을 구상하고 확대하는데도 중요한 예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원봉사자를 관리 운영하는 세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체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봉사 관리자에 관계 없이 표준화된

자원봉사 관리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 자원봉사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에 고려할 만한 중요한 세부 숙지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모집, 훈련, 배치 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 자원봉사자 운영이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주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단,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측면이 있다.

첫째, 자원봉사자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한정된 재원에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보다는 지속적 관리를 통한 자원봉사의 유지 등 경제적이고 관리적인 입장에서 매뉴얼이 구성되고 기술되어 자원봉사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매뉴얼 세부 내용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연령, 사회적 특성 등에 따른 차별적 자원봉사 관리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자원봉사 관리자 매뉴얼을 작성, 수립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직접적 지원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 지역사회교육원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참고자료

- Courtney Dodd and Chris Boleman, Volunteer Administration in the 21st Century: ISOTURE-A Model for Volunteer Management, Texas Cooperative Extension The Texas A&M University System, (<http://texasextension.tamu.edu/> 2010. 3. 10 인용) 외

봉 · 사 · 체 · 험

영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활동

Get Ready for Geneva!

김영지 ²⁰⁾

→ 개요

영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3, 4차 국가보고서 제출(2007. 7)과 유엔 심의(2008. 10)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2007년 6월 신설된 아동·청소년 부처는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인 Children's Plan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로비활동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이하 CRAE)를 중심으로 2008년 3월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기구인 Children's Commissioner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활동을 펼치고 독자적인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신장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CRAE에서 진행한 'Get Ready for Geneva' 프로젝트를(이하 제네바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사전회의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유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과정을 지켜보았다. 제네바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 신장을 위한 참여활동을 펼치고 국제사회의 인권 모니터링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라 할 수 있다.

| 활동개관

제네바프로젝트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보고과정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삶과 공공정책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프로젝트이다(2007.4~2010.3). 아동·청소년이 프로젝트의 기획, 시행, 평가과정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연구위원

21) <http://www.getreadyforchange.org.uk/> 2007년 프로젝트 시작 당시 명칭은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 'Get Ready for Geneva'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청소년들이 2008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국정부 심의 회의 참관을 다녀온 이후에는 프로젝트명을 'Get Ready for Change'로 바꾸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의 권고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인권 시장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즉, 'Get Ready for Geneva'와 'Get Ready for Change'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기에 따라 명칭만 다르게 사용한 것이다. 2010년 현재 홈페이지에는 'Get Ready for Change'로 소개되어 있다.

‘Get Ready for Change’²¹⁾ 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전국적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은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관점, 경험,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광범위한 아동권리조사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영국²²⁾ 아동·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프로젝트 내 아동권리조사팀이 수행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과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특히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작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포커스그룹은 2007년 여름에 진행되었다.

아동권리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는 아동·청소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프리세션 회의에서 발표하였는데, CRAE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회의에 참여할 아동·청소년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대회를 진행하였다.

아동권리 조사활동은 영국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조사결과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중심으로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한다.

CRAE는 지역의 의사결정자들이 제네바프로젝트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삶을 증진시키겠다는 공식 서약을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아동권리 챔피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네바프로젝트는 복권기금(Big Lottery Fund)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CRAE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07년도에 5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

○ 제네바프로젝트 관련 주요 일정

- 2002년 : 영국이 가장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해
- 2007년 1월 : 제네바프로젝트 참가자 공모 홍보물 배포(학교, 단체 등)
- 2007년 4월 : 제네바프로젝트 착수. 운영위원회와 웹사이트팀 1박 워크숍
- 2007년 5월 : 200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이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초안 발간
- 2007년 6월 : Get Ready for Geneva 웹사이트 개설 및 아동권리 조사 착수
- 2007년 7월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최종본 제출, 조사팀 1박 워크숍을 통해 포커스그룹과 설문조사 문항 결정
- 2007년 12월 : 아동권리 조사 완료
(조사 주제 : 교육, 존중, 자유, 가족과 친구, 범죄, 건강과 안전, 여가와 놀이)
- 2008년 1월 : Get yourself to Geneva 대회 시작. 대회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있는 제네바에 가서 영국의 아동권리 실태를 발표할 아동·청소년 선발

22) 이 프로젝트는 CRAE가 활동하는 England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2008년 2월 :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을 통해 수집된 정보 분석 회의 개최. 초안위원회에서 보고서 집필 착수
- 2008년 3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보고서 제출
- 2008년 4월 : 제네바 파견 아동대표단 1박 워크숍 개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 작성 보고서 제출
- 2008년 6월 : 아동대표단 제네바 방문(프리세션 작업집단 회의 참석)
- 2008년 9월, 10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영국정부보고서 심의
- 2008년 10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영국 아동인권상황 심의결과 결론적 의견 발표
- 2008년 11월 : Get Ready for Geneva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 2008년 11월 : Get Ready for Geneva 아동들이 유엔 심의결과인 ‘결론적 의견’에 기초하여 캠페인 실시.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240명의 아동권리챔피언 조직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중심으로 인권활동 수행



대상 선발 및 조직 구성

| 참여 아동·청소년 선발

제네바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원하고 인권에 관심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있으며 20명 정도가 대표자로 활동한다. 이들은 지역단위에서 인권활동을 펼치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데,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를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한다(프로젝트 담당자인 Sam Dimmock 인터뷰 내용) 주로 학교나 아동·청소년단체·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신청한 사람들 중 열정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선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성·인종·민족·장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 집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60명 정도 신청한 중에 최종 20명을 선발하였는데, 신청 시에는 아동권리가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에 대해 글, 노래, 필름, 그림 등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 후 성인 2명, 아동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채점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제출 분야가 다르고 모두가 열성을 보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선발된 아동·청소년 중 12명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프리세션 회의에 참석하여 영국의 아동·청소년 권리상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2명은 6시간짜리 NGO 미팅에, 10명은 1시간짜리 캐주얼 미팅에 참여하였다. 회의에서 아이들이 놀 곳이 없는 문제, 학교 스트레스, 왕따문제, 아동권리 존중여부 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9월 본회의 때는 사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아동들 2명이 참석하였다.

선발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인권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권교육, 연구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아동·청소년 참여에 적극적인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학교나 유스클럽 등의 공지를 통해 우연히 기회를 발견한 경우도 있지만 참여청소년 대부분은 인권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이들이 많다(12명 중 10명 정도). 정부의 정보제공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자치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프로젝트 홍보 시에는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Facebook(한국의 싸이월드 유사) 등을 활용하였다.



▲ 제네바에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국정부 인권상황 심의과정을 참관하고 있는 청소년들

| 제네바프로젝트 조직구성

제네바프로젝트는 다음의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① 운영위원회 :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의사결정 지원
- ② 웹사이트 및 커뮤니케이션팀 : 웹사이트와 문서작성
- ③ 아동권리조사팀 : 아동권리 실태 조사·연구
- ④ 아동권리 챔피언 : 자신이 살고있는 곳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도록 권리신장 활동 수행

이 외에 경험있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헌신적인 성인 직원팀이 있다. 그들의 역할은 아동이 영국에서 아동권리가 얼마나 잘 존중받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 교육 및 훈련자료 및 아동·청소년 인권연구활동

| 교육 및 훈련자료 내용구성

CRAE는 제네바프로젝트 참여 아동·청소년들이 인권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자료를 발간하였다. 교육자료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협약의 주요조항, 협약이행과 모니터링 과정, 아동권리의 중요성, 기타 인권조약,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야할 주요 정책결정자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동권리에 대한 Q&A, 아동권리 관련 용어해설 등
- ② 정책결정자 대상 아동권리 신장활동 방법 : 활동을 위한 10가지 팁, 캠페인 아이디어 예시,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정책 집행 관련 조직, 아동권리 캠페인 지원조직, 의사결정자와 대화하는 방법, 아동권리 이슈 연구절차와 방법, 주요 연구팁, 면접조사 시트지 등
- ③ 지역단위 인권활동 실천전략 : 다섯가지 핵심 전략,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전략, 미디어 홍보방법 (보도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보도자료 샘플예시 등),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 등
- ④ 아동권리 활동프로그램 : 아동권리에 대한 7가지 활동프로그램 예시(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과도 함께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토론 중인 청소년

| 아동·청소년 인권연구활동 - 유엔 제출 보고서 작성

보고서를 작성한 초안위원회 13명은 Get ready for Geneva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로써 잉글랜드 전역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Alex White(17세), Charley-Louise

Barker(12세), Daniel-Sean Huisman(15세), Dominic King(14세), Imogen Walsh(17세), Iqra Bilal(17세), Jacob Wells(15세), Jules Mattsson(13세), Kat Terry(12세), Laura Partoon(17세), Rose Graves(17세), Sharon Skinner(17세), Wez Smith(14세)

보고서의 목적은 영국 아동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이 그들의 권리가 얼마나 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46명의 아동들이 아동권리조사 포커스그룹에 참여하였고, 1,362명 대상의 온라인조사가 실시되어 총 1,708명의 아동이 조사에 참여한 셈이다.

연구는 8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설계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교육, 존중, 자유, 가족과 친구, 범죄, 건강과 안전, 여가와 놀이 등 7개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설계를 하고 매달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주제의 조사를 실시하여 잉글랜드 전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포커스그룹의 경우 대부분 18세 미만이었다. 18세가 지난 어린부모,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총 346명의 포커스그룹 구성을 보면, 16-18세 26명, 흑인과 소수민족 아동 64명, 폭력·학대·방임 아동 21명, 보호아동(in care) 41명, 법적 문제가 있는 아동 9명, 빈곤아동 42명, 11세 미만 아동 50명, 장애아동 21명,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15명, 난민아동과 망명요청 아동 29명, 유랑아동 20명, 어린 부모 8명 등이다.

아동·청소년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영국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바라는 14개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법 마련, 미디어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포시키지 않도록 의무 미디어 가이드라인 도입, 차별 금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아동들의 참여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부모와 성인들에게 교육시킬 것, 수용청소년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아동의 시험과 학업부담 스트레스를 줄일 것, 괴롭힘과 시험스트레스 등 아동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및 괴롭힘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아동과 일하는 건강 전문가에게 특히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LGBT) 청소년 이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성문제와 건강관련 상담 필요, 아동, 특히 흑인과 소수민족 및 유랑아동들에 대한 경찰의 차별(잠재적 범죄자로 추정하는 등) 금지,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증진, 장애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증진, 아동들이 저렴하게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모든 공원과 여가시설 안전관리 및 연령별 여가시설 마련 등이다.



아동권리 챔피언 활동사례

제네바프로젝트에서 아동권리 챔피언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동권리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내 중요한 인사들이 제네바프로젝트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삶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겠다는 공약(public pledges)을 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거나 아동권리 침해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챔피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자로는 지역신문 편집장,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학교 교장선생님, 국회의원, 의사, 지방의원,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아동·청소년 담당부서 과장, 종교지도자 등이다.

◀ 아동권리 서약서 양식

아동권리 서약서 양식은 소속과 직책 등 인적사항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할 일과 그로 인한 기대 효과를 기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프로젝트 홈페이지에는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자신이 추진할 일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²³⁾.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위원회를 만들어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지역 아동정책 서비스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겠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권존중 문화를 만들겠다,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들과 함께 하겠다, 가능한 미디어에 나타난 긍정적인 청소년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겠다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시사받을 점은 CRAE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권리 챔피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인권활동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교육훈련자료인 ‘Get Ready for Change – be a children's rights champion’에는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자와 대화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데, 만남을 위해 방문날짜를 잡기 위한 과정, 언제 만날 것인가, 만남 뒤의 과정 등에 대해 지침이 있다. 또한 지역 의사결정자에게 보내는 편지 샘플을 제공하여 이를 기초로 아동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아 보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http://www.getreadyforchange.org.uk/champions/pledge_archives

방문할 지역인사 이름

방문할 지역인사 주소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이메일 주소

날짜

_____ 귀하

제 이름은 _____ 이며 나이는 _____ 세입니다. 저는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와 Get Ready for Geneva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영국에서 아동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캠페인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영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40여 조항을 담고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저는 우리지역에서 아동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께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자세한 기술)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젝트 웹사이트(www.getreadyforgeneva.org.uk)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이름과 사인



제네바프로젝트 이해를 위한 참고정보

1) 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CRAE)

제네바프로젝트를 진행하는 CRAE는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권리 신장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민간단체이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 내 380여개 조직의 연합체로서 1999년 4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직원은 11명 정도이다.

주요 활동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로비활동, 아동권리협약과 기타 인권 분야 이행에 대한 정부의 활동 감시, 아동 권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일 등이 있다. 정부의 아동권리 관련 활동을 점검하여 매년 ‘영국아동권리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마다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권고 활동을 수행한다. 2008년 6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NGO는 152개 정도의 권고내용을 작성하였는데,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니세프 등 20여개 단체가 초안작성을 위한 커미티를 구성하여 연구·집필활동을 하였고 CRAE는 간사역할을 수행하였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후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였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비준한 국가들은 행정·입법·사법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기존의 많은 법률이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하는데 비하여 본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이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이를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며(제42조), 비준한지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태와 진전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44조).

영국은 2002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 2007년 7월 2002년 이후 아동권리 진전상황을 담은 제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영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124개의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사점

제네바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증진을 위해 참여활동을 펼친 점이라 하겠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사전회의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유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인파트너의 협력활동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CRAE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아동·청소년 스스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되, 여기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필요한 자료와 정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서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파트너십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특히 CRAE가 아동·청소년과 함께 만들어낸 교육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 발간 시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내용의 경우 반드시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자료를 같이 발간하는 것도 시사받을 만하다. 예를 들어, CRAE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권리실태보고서의 경우도 공식보고서와 함께 아동·청소년 버전 보고서를 같이 발간한다.

전국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캠페인과 동시에 아동권리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단위에서 권리증진활동을 펼치도록 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의미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네바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 신장을 위한 참여활동을 펼치고 국제사회의 인권 모니터링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2008). Get ready for change, Be a children's rights champion.
-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2008). Get ready for Geneva! Submission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Get Ready for Geneva Project 홈페이지 <http://www.getreadyforchange.org.uk/>

봉 · 사 · 체 · 험

캐나다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VSO 캐나다

윤철경 ²⁴⁾

→ 개요

VSO 캐나다는 국제자원봉사 전문 민간조직으로 북미지역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34개 저개발국가에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미지역(VSO Canada, Ottawa), UK(London), 네덜란드, 필리핀, 케냐, 인디아, 아일랜드 등 8개국에 사무소가 있다. 민간조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조직으로 연 850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며 그 중 130명은 미국, 캐나다에서 파견하고 있다. 130명 중 미국인이 30%이며 캐나다인이 70%이고 청소년은 6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국이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캐나다(1/8)이다. 이 조직은 50년 전에 영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국제청소년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노하우를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 재정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EU로부터 받는 것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은 CUSO이다. CUSO는 주로 CIDA(캐나다정부 국제협력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8년 가을 캐나다 VSO와 CUSO 두 조직이 합병되어 현재 CUSO-VSO로 활동하고 있다.

→ VSO의 개발 목표

VSO는 크게 6개의 개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도국의 학교 시스템 및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사 교육 및 교육 방법 전수, 그리고 부모가 지역사회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HIV&AIDS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HIV&AIDS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VSO의 세 번째 목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12개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사람처럼 일반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SO의 활동가들은 교육, 고용, 의료관리 등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거나 지역 장애인 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다. VSO는 개도국 정부의 조직 및 정책에 관한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네 번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교육, 건강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

달하고 이들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VSO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캐리비안 17개국의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천연자원 관리 및 식량생산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위생과 건강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VSO가 청소년대상 인턴십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CIDA의 재정지원이다. 다양한 자원봉사집단 개발의 필요를 느끼다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캐나다에서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지원했던 Netcorps 사업(2007년에는 CIDA 지원)을 통해 해마다 20~30명씩 10년간 청소년자원봉사자 파견을 했었으나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지금은 인턴십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보다 캐나다 국내의 자체인력이 모자라는 간호, IT 분야의 자원봉사자 파견지원을 위하여 국제 자원봉사활동 파견이 주춤한 상태이다.

VSO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최소 2년 경력 이상의 전문자격증 있는 청년들이 참여 가능하다. 자원봉사영역은 모두 6개영역으로 교육, HIV/AIDS, 장애, 보건 및 복지, 참여, 행정 등이다. 자원봉사업무는 해당국 지역조직의 요구에 따라 2~3개 영역을 선택하되 다른 민간조직이 안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개발한다. 현지국가와 함께 해당국 전략보고서 작성한다. 예를 들어 르완다 전략계획에는 교육과 장애를 채택한 프로그램을 해당국 요청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VSO Canada의 청소년자원봉사사업은 CIDA의 사업 틀에 따라 6개월 파견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6명을 파견했다. 6~7명 모집에 20~30명 지원하여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자원봉사자의 업무내용은 카메룬 북부 학교개발사업, 학교프로그램개발 등이며 카메룬 장학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교육하며 HIV/AIDS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고 있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연수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배경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특별히, 카메룬 파견자의 자격요건으로 지역사회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었다.

선발과정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동일하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시험을 치러서 선발

한다. 4명의 시험관이 다음과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 ① 8명을 한 집단으로 한 집단면접: 집단은 연령별로 섞여서 조직하며 기업의 자원봉사자도 섞여 있다.
- ② 개인면접
- ③ 집단활동: 문제해결활동, 토론능력을 요구한다.
- ④ 이 과정을 통해 배울 점, 고칠 점 등 Reflection

매월 4회의 선발 시험이 있다. 선발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긍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능력, 유연성과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 배울 자세,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이다. 파견이 확정되면 파견 전에 반드시 한 번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은 대부분 9월에 파견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을 통하여 7-8월에 연수를 받는다. 연수프로그램은 1개월에 1회씩 제공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 후 반응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턴십이 진로개발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지역파트너들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파견된 청소년자원봉사자 7명 중 5명이 6개월 후에도 VSO 단기 프로그램에 남아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파트너십

VSO의 청소년자원봉사 사업은 CIDA의 재정지원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CIDA의 청소년 해외인턴십 사업 틀을 준수하면서 VSO의 국제자원봉사 전문성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CIDA는 청소년 고용전략의 일환인 Career Focus 사업의 틀에 따라 국제원조개발사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CIDA의 청소년 해외 인턴십 사업은 19세에서 30세의 청소년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적성을 개발하고 CIDA가 표방하는 국제구호와 국제 지원, 개발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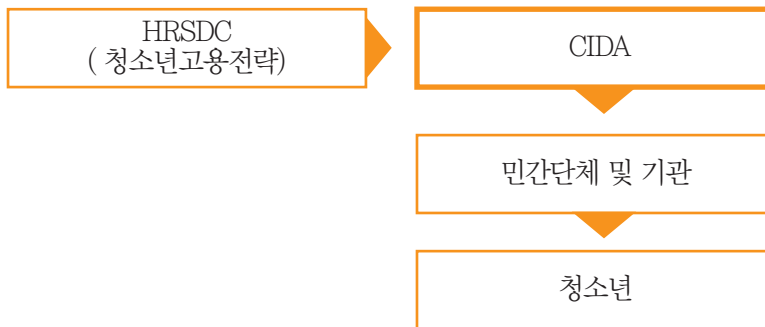
1) CIDA의 프로그램 목표

전 세계적인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캐나다와 다른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즉,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직 활동 기반을 튼

튼히 하고 해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체계적으로 국제경험을 쌓고 유지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제공한다. 청소년과 청년이 개개인을 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여 국제적인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도 공헌하는 책임감 있는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 CIDA의 프로그램 운영체계



[그림 2] 캐나다 청소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이 프로그램은 HRSDC의 고용전략에 따라 19세에서 30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CIDA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CIDA는 민간단체와 기관의 국제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한다.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는 CIDA의 해외인턴 자격기준과 기관이 원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청소년을 선발한다.

청소년 지원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민간기관에 인턴십을 지원하면 된다. 2008년도에는 900명의 청소년이 지원하여 392명을 선발하여 약 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소년 1인당 \$15,000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 CIDA의 사업평가 및 사후 관리

CIDA는 재정지원을 한 민간단체와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으며 평가한다. 사업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비용 지출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나?

- intern에게 그에 부합한 일이 맡겨졌나?

- intern의 skill이 향상되었나?

청소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복귀 후 성과를 보면 첫째, 사회적으로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사회적 경력으로 유용하게 인정되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간 복귀 후 CIDA 고용된 비율이 높다. 셋째, 현지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UNDP 등 국제기구에서 고용되기도 한다. 넷째,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넓어진다.

→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VSO가 청소년대상 인턴십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CIDA의 재정지원이다. 다양한 자원봉사집단 개발의 필요를 느끼다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캐나다에서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지원했던 Netcorps 사업(2007년에는 CIDA 지원)을 통해 해마다 20-30명씩 10년간 청소년자원봉사자 파견을 했었으나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지금은 인턴십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보다 캐나다 국내의 자체인력이 모자라는 간호, IT 분야의 자원봉사자 파견지원을 위하여 국제 자원봉사활동 파견이 주춤한 상태이다.

VSO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최소 2년 경력 이상의 전문자격증 있는 청년들이 참여 가능하다. 자원봉사영역은 모두 6개영역으로 교육, HIV/AIDS, 장애, 보건 및 복지, 참여, 행정 등이다. 자원봉사업무는 해당국 지역조직의 요구에 따라 2-3개 영역을 선택하되 다른 민간조직이 안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개발한다. 현지국가와 함께 해당국 전략보고서 작성한다. 예를 들어 르완다 전략계획에는 교육과 장애를 채택한 프로그램을 해당국 요청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VSO Canada의 청소년자원봉사사업은 CIDA의 사업 틀에 따라 6개월 파견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6명을 파견했다. 6-7명 모집에 20-30명 지원하여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자원봉사자의 업무내용은 카메룬 북부 학교개발사업, 학교프로그램개발 등이며 카메룬 장학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교육하며 HIV/AIDS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연수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배경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특별히, 카메룬 파견자의 자격요건으로 지역사회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었다.

선발과정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동일하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시험을 치러서 선발한다. 4명의 시험관이 다음과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 ① 8명을 한 집단으로 한 집단면접: 집단은 연령별로 섞여서 조직하며 기업의 자원봉사자도 섞여 있다.
- ② 개인면접
- ③ 집단활동: 문제해결활동, 토론능력을 요구한다.
- ④ 이 과정을 통해 배울 점, 고칠 점 등 Reflection

매월 4회의 선발 시험이 있다. 선발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긍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능력, 유연성과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 배울 자세,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이다. 파견이 확정되면 파견 전에 반드시 한 번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은 대부분 9월에 파견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기간을 통하여 7-8월에 연수를 받는다. 연수프로그램은 1개월에 1회씩 제공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 후 반응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턴십이 진로개발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지역파트너들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파견된 청소년자원봉사자 7명 중 5명이 6개월 후에도 VSO 단기 프로그램에 남아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VSO는 민간조직으로서 저개발국가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훈련하여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원조단체이다. 캐나다 국제협력단(CIDA)는 민간단체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등 유럽국가와 함께 해외원조 선진국에 속한다. 해외원조 선진국은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다. CIDA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부 부처이며 캐나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기를 선택하는 부처이다. 이러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대외공적 원조(ODA)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원조단체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그 규모는 매우 작고 영향력은 미미하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고 국제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VSO 사례는 세계시민의식 및 자질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관심과 존중, 배려 등 지구공동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태도의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캐나다 VSO 사례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국제 기여’로 발전시킬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계는 그동안 청소년의 세계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해 국제교류의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소년의 국제교류사업은 이제 선진국에 대한 선망과 추종자 위치에서 저개발국가의 동반자(또는 리더) 위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국제적 기여를 증대하는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국제적 기여 의식 증대를 위해서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시설단체 뿐 아니라 기아대책,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등 해외원조단체 및 일반시민단체의 활동까지 확대하여 청소년활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인증제는 해외원조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의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초창기에 있는 해외원조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해외자원봉사자 발굴, 파견보다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교육으로 멈추지 않고 향후 해당 단체의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VSO 캐나다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파견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해외

자원봉사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윤철경 · 유성렬(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07).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Canadians and/or Permanent Residents.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07).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IYIP). Guidelines and Application Form Version.
- www.vso.org.ca
- VSO(2006). Annual Review.
- VSO(2005). Partners in Change VSO Canada's Strategy for Achieving Shared Goals.
- Youth Employment Services(2007). Centre of Excellence for Youth Employment & Empowerment Annual Report 2007.
- Youth Employment Services(2007). Partnership Invitation When Youth Work Communities Work.
- HRSDC(2008). Youth Employment Strategy(YES).
- YES(2008). Current YES Structure.

사 · 회 · 체 · 험

그리스의 창의적 체험활동
Field Trip 2박3일

최창욱 ²⁵⁾

→ 개요

그리스는 국가정책 위주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민간영역의 청소년 체험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스의 청소년관련 중앙행정기구는 교육종교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 Religious Affairs) 산하의 5개 실(Secretariat) 중 청소년실(General Secretariat for Youth)이다. 이 청소년실의 청소년 정책대상 연령은 주로 18세부터 30세까지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이 청소년실은 창업·고용국, 사회참여국, 국제협력국, 조직기획·연구국, 행정·재정국 등 5개의 국(Division)과 그 산하에 18개의 과(department)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과들은 고유한 청소년관련 사업들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그리스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여행 프로그램, 청소년문화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청소년카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여행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여름에는 요트 및 극기훈련 프로그램, 겨울에는 스키 및 극기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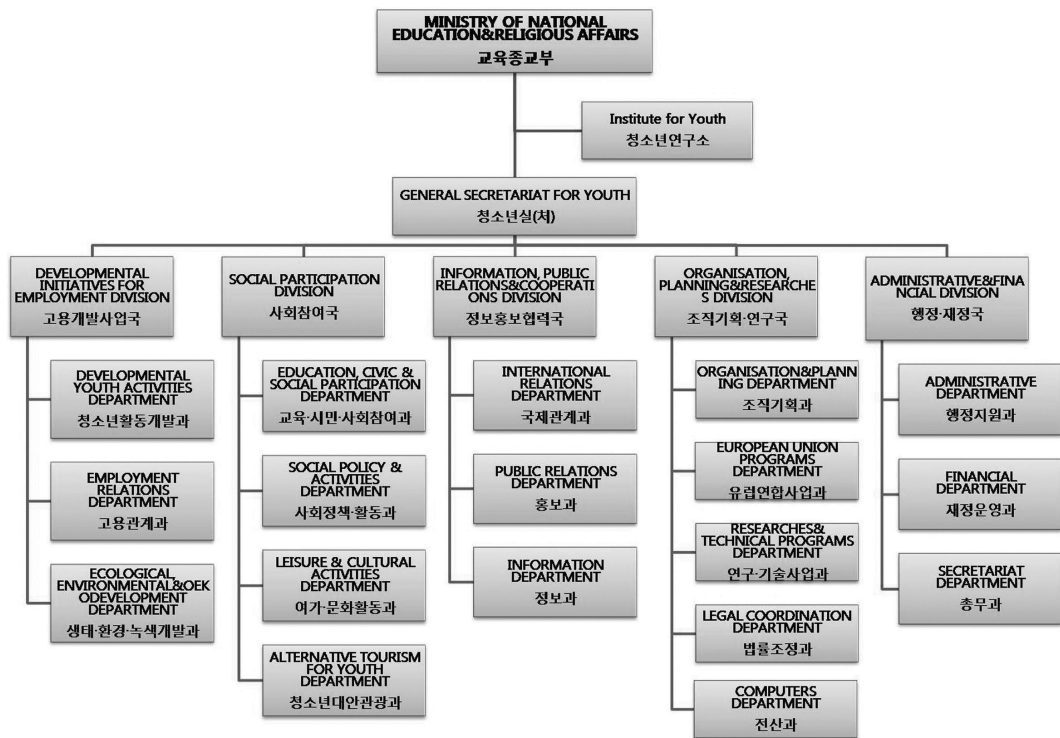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문화(youth culture) 프로그램은 연극, 그래피티, 춤, 음악, 비디오 아트, 영화제작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청소년의회(local youth council)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위원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은 하나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EU와 함께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청소년카드(youth card)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활동 할인, 교통할인 등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그림]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실 체계도

→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여행 프로그램

청소년여행 프로그램은 그리스 교육종교부 사회참여국(social participation division)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겨울에는 스키 프로그램, 여름에는 요트 프로그램과 레프팅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고, 방학이나 휴가에 시내에만 거주하며 생활할 경우 약물남용, 문제행동 등을 더욱 잘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연지기, 친교, 리더십 등을 함양하도록 마련되었다.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종교부 청소년실 사회참여국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모집에 선착순으로 예약하여야 한다. 단 개인에 한해서 한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그리스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30세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그리스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리스 청소년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되며 이 중 평균 약 2만명 가량이 신청을 한다. 이 프로그램 연간 참여 가능인원은 겨울 프로그램(스키 등)은 4천명, 여름 프로그램(요트, 레프팅 등)은 3천명이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1인당 170유로(약 26만원)이다. 이 중 정부보조금으로 120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유로는 개인부담이다. 이 프로그램은 2박 3일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스키 등의 겨울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에서 여행사를 지정하면 그 여행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요트 같은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요트협회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홍보는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 만큼 인기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팀워크 향상, 호연지기 향상, 리더십 향상 등이며,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날씨에 대한 이해, 배의 원리에 대한 이해, 바다 환경 보호인식 함양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youth culture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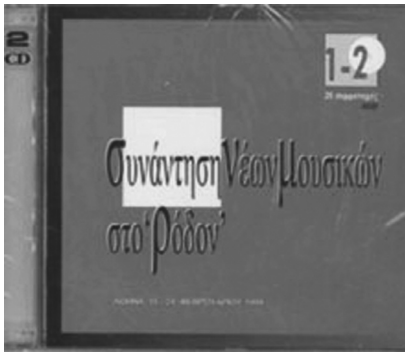
청소년문화(youth culture)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여행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교육종교부 사회참여국(social participation division)에서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직접 수행하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비단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인들로 구성된 협회도 지원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문화활동 직접지원, ‘젊은 사람들이 유럽을 알게된다’ 프로그램, ‘극장을 알리자’ 프로그램, ‘일요일 저녁 극장시간’ 프로그램 등 4가지의 주요 세부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극, 그래피티, 춤, 음악, 비디오 아트, 영화 제작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들이 문화활동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째, ‘젊은 사람들이 유럽을 알게 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로 4박 5일간의 문화여행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극장을 알리자’ 프로그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INEMA’란 잡지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하루 수업대신 교육적인 내용의 영화관람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같이 수업을 대신하여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 청소년문화 지원프로그램 성과물(무료 배포용 CD와 잡지)

넷째, '일요일 저녁 극장시간'은 학생들이 부모, 친구와 함께 일요일 저녁에 2.5유로 정도로 보고싶은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보통 그리스의 극장료는 7.5유로임)이다. 단지 청소년만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도 모두 할인이 가능하다.

| Local Youth Council(LYC) 프로그램

LYC 프로그램은 그리스 교육종교부의 고용개발사업국(developmental initiatives for employment division)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다. LYC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기구 중의 하나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LYC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시장직속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LYC는 만 15세부터 28세의 그리스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선거는 매 2년마다 치르며, 따라서 임기도 2년이다.

LYC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에 조직되어 있으며, 인구 2만명 미만의 도시는 5명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는 9명으로 구성한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청소년관련 행사지원,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마다 관심정도가 달라 잘되는 시와 그렇지 않은 시가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YC 위원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보다 발언력이 높으며,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은 유럽 전체를 하나의 유럽으로 묶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EU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이다. Youth in Action은 교육종교부 산하의 EU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 및 사업기관인 청소년 연구원(Institute for Youth)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그리스 청소년정책실 산하 청소년연구소로 보이거나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처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EU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07년도 설립하여 청소년정책실(General Secretariat for Youth)의 업무에 대한 리서치기능과 서포터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청소년정책실의 큰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 기관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EU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원은 5개의 부서(Economic Department, Research Department, Program Department, Organization Department, Computer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Youth in Action 프로그램과 청소년카드(Youth Card) 프로그램이 있다.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의 펀드는 EU 60%, 그리스 40%이며, 1년마다 심사하여 사업을 연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EU소속 국가의 국민이라기보다는 EU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유럽전체를 위한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함으로써 유럽의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게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개인별, 단체별 신청자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를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 동안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에는 5 ACTIONS이라 불리는 5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있다. 5 ACTIONS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Action 1: 유럽공동체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이 프로그램은 13세부터 2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청소년그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Youth Exchanges 프로그램, 18세부터 3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각이나 경험을 교류하는 유럽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Youth Initiatives 프로그램, 13세부터 30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Youth democracy Projects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② Action 2: 유럽 자원봉사 서비스(European Voluntary Service)

이 프로그램은 18세부터 30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 2달부터 12달까지의 기간동안 국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Action 3: 세계 속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이 프로그램은 EU가 아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과의 교류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질적인 문화간의 대화와 소통, 갈등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교류를 지원한다.

④ Action 4: 청소년 지원 시스템(Youth Support Systems)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 네트워킹, 정보서비스, 세미나, 모임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분야 NGO나 청소년포럼을 지원한다.

⑤ Action 5: 청소년분야의 국제기구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이 프로그램은 정책결정자들과 청소년들의 구조화된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분야에서 국제협력과 협업을 지원한다.

| Youth Card

Youth Card 프로그램은 Youth in Action과 함께 교육종교부 산하의 EU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 및 사업기관인 청소년 연구원(Institute for Youth)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리스에서는 2008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로카드(EUCA)의 관리자는 교육종교부 산하의 청소년정책실(General Secretary for Youth)이다. 청소년연구원에서는 5명으로 이루어진 교육종교부에서 선출하는 유로카드 운영위원회(EUCA Board)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대학 교수이다. 유로카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로카드는 현재 유럽 40국에서 약 4백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13세부터 26세 청소년이 약 백만명 정도되며, 현재 이 중 1만 5천명의 청소년이 유로카드 회원이다. 현재 유로카드 발급대상은 13세부터 26세까지이나 향후 30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1년에 15유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음식점, 옷가게, 극장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의 병역의무를 가지는데 군대에 입대하면 무료로 카드를 발급해준다.



[그림] EU 청소년카드



시사점

그리스 행정부서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정책부서(청소년정책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처럼 청소년정책부서가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도 청소년들을 문제행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여행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청소년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은 18세부터 30세까지로 보고 있으며,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Youth Card 프로그램 등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식이 많다. 아마도 EU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후진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 등 청소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정책참여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리스의 청소년참여기구인 Local Youth Council(LYC)가 이제 시작단계(2008년 시작)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구로 편제되어 있어 청소년의 정책의사결정 참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과 LYC의 위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됨으로써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문화(Youth Culture) 지원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지원분야의 다양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타문화이해를 위한 좋은 시사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동북아공동체 형성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큰 비판에 직면해있다.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을 위해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또한, Youth Card(EUCA; 유로카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Youth Card 제도도 그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Greek General Secretariat for Youth(2008). Youth in Action. On-line: <http://www.neagenia.gr>
- Greek General Secretariat for Youth(2008). Youth Card. On-line: <http://www.neagenia.gr>
- 최창욱(2008). 그리스 국가 간 교류 출장복명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녹 · 색 · 체 · 험

일본의 대안학교 체험활동
키노쿠니학원

맹영임 ²⁶⁾

→ 개요

| 키노쿠니학원에서의 체험활동

일본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에 있는 키노쿠니학원(きのくに子どもの村学園)은 초·중·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학교로 일본의 섬머힐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www.kinokuni.ac.jp, info@kinokuni.ac.jp). 국립오사카대학 교수로 있던 교육학자 호리씨가 영국의 섬머힐을 모델로 '아이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와카야마 산속에 만든 학교로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적 실천을 주도해 오고 있다. 아이들은 누구나 그 안에 학습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그 동기와 자발성을 살리는 자유로운 교육과정과 문화를 만들어 온 학교로 유명하다.

초·중·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원형 대안학교인 키노쿠니학원은 1992년 4월 1일 와카야마현에 소학교를 개교 한 후 1994년에는 중학교, 1998년에는 국제고등전수학교가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카츠야마현에도 소학교를, 2001년에는 중학교를 열었고, 영국(스코틀랜드)에도 분교를 만들었다. 학년의 구분없이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수평적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은 기업의 후원으로 극복하고 있다.

키노쿠니학원에서의 수업은 자기결정과 개성을 중요시하면서 체험활동(프로젝트활동)위주로 진행된다. 구성원 개개인이 감성적·지적·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 일본 공교육의 체험학습이나 종합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きのくに子どもの村学園(2008). 教育改革は체험학습から).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와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기는 쉽지 않다. 학교가 교사중심의 관리주의, 개성 경시의 획일주의, 텍스트 중시의 학문중심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키노쿠니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결정' '개성화' '체험학습' 으로 향하도록 이런 기본방침을 조화롭게 만들어 '프로젝트' '기초학습' '자유선택과 미팅' '개별학습'이라는 학습형태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키노쿠니학원에서의 체험활동사례는 1997년 키노쿠니학원의 중학교 프로젝트활동팀으로 탄생한 동식물원구소 클래스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들여다본다'는 활동주제를 가지고 2000년부터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주제를 일관되게 공부해 오고 있는 바이오톱(biotope)활동이다.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체험활동 사례

: 바이오토피 준 선물(프로젝트가 키우는 자유로운 아이들)

바이오토피

biotope : 어떤 생물군이 일정한 생태를 유지하면서 적응한 생활환경, 또는 어느 일정한 생물상을 이룬 환경

바이오토피(biotope)은 최근 학교교육, 특히 초·중학교의 종합학습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원래 독일이 발상지이다. 바이오는 생물, 토피는 토지나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야생의 동식물이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다. 환경의 변화로 모습이 사라진 동식물이나,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리는 자연계의 순환구조에 눈을 돌려 생물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유지시켜나가는 장치를 일러 바이오토피이라 한다.

이런 생각은 일본에서도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현장이나 마을 만들기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키노쿠니학원의 경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관련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편이다. 특히 동식물연구소 클래스라는 프로젝트팀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 프로젝트팀에서 바이오토피을 올해 활동으로 해보자는 결의를 하고 학교 안에 바이오토피를 만들고 체험과정을 정리했다.

활동 목표

키노쿠니학원 수업의 핵심은 체험활동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제도로, 일주일에 각각 14시간, 11시간 배정된다. 이 체험활동은 단순히 실물에 접촉한다든지, 손이나 몸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급경사면에 100미터 이상 지름길을 만들고 쌀이나 야채를 만들어 자유시장에서 팔고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닭을 병아리 때부터 키워서 달걀요리를 만들어보는 식의 본격적인 체험활동이다. 중학교에서도 동굴생활이나 고분의 복원, 바이오토피 만들기, 솥 굽기, 차 정비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일을 중심으로 한다. 키노쿠니학원이 체험활동에 수업시수의 반을 할당하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학습 스타일로 유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자유로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감정 해방

현대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리한 요구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부정감이나 자기증오를 가지고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창조적 지성

지금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지식의 기억이나 기계적인 기법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이나 일을 접하면서 그걸 풀기 위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변에서의 문제나 일을 직접 해보면서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 손이나 몸도 써 가면서 확인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현대 아이들은 고립되어 있다. 다른 아이들과 마음을 통하는 기쁨보다 경쟁에 마음을 빼기고 있다.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한 타자와 함께 힘을 모아 소망이나 요구를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활동

활동 1 : 활동 테마 정하기

'학교가 있는 지역이 산 속이라 해서 자연이 풍성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학교 주변을 살펴보니 모르고 지나쳤었던 자연이 훼손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보고 바이오톱을 만들어 자연을 복원하고 동식물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바이오톱을 프로젝트 테마로 설정한 동식물연구소팀은 1997년 키노쿠니어린이마을 중학교 프로젝트로 탄생한 팀이다. 활동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들여다본다'이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주제를 일관되게 공부해왔다. 바이오톱을 시작하고서도 같은 주제를 살피는 셈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는 '삶'을 주제로 하는 체험학습이다. 살아가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식' '의' '주'라는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말한다. 중학교 프로젝트활동은 더욱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도 자주 다뤄진다. 하지만 '사람이 살

아가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는 않는다. 다들 '삶' 속에서 무척 중요한 구체적인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열중해서 파고들어 진정한 학습이 되기 때문이다. 동식물이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접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해간다.

히코타니의 자연은 진짜로 풍성하게 살아있나? 학교가 있는 히코타니는 깊은 산속에 있다. 30~40년 전에는 200명 정도의 사람이 밭을 일구기도 하고 산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특히 임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스기나무나 히노키나무를 팔아서 현금 수입을 많이 올렸다. 또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밭이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빼곡히 들어섰다. 산간지역의 엄혹한 자연환경 안에서도 당시 마을의 생활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이른바 '산속마을의 자연'이 남아있는 마을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밭도 논도 사라지고 인구도 10여 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살핀다'를 주제로 해온 프로젝트팀이 바이오톱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마을의 생활모습도 자연도 크게 변화했지만 학교 주변에는 여전히 숲이 울창하고 공기도 맑다. 곤충도 많고,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 외에도 여우나 너구리, 멧돼지 같은 큰 포유류도 간혹 나타날 정도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자연이 아주 많이' 보인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들은 아쉬운 듯 옛날이야기를 한다. "옛날에는 손으로 바로 떡먹을 정도로 물이 맑았고, 반딧불이도 많았단다." "비가 오는 날이면 길에 청개구리가 뛰쳐나왔단다." 바이오톱 만들기는 먼저 가까운 자연과 사람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을 던진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옛날 자연이 풍부했던 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사라졌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아이들은 중학생으로 품을 수 있는 궁금점과 호기심을 키운다.

※ 왜 바이오톱인가?

- 몸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는 스케일이 큰 활동이다.
- 머리를 써서 창조하는 활동이다.
- 정보를 모으고 가설을 세워 실험하고 검증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다.
- 실패나 어려움이 많은 활동이다.
- 토론하고 협력해나가야만 해낼 수 있는 활동이다.
- 결과가 확실히 보이는 활동이다.
- 신체가 더럽혀지는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활동 2 : 땅 빌리기

바이오톱을 시작하려면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생물을 부르기 위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것은 곧바로 해결했다. 운이 좋게도 마을 이장님이 도와서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에 밭이었던 곳을 빌릴 수 있었다. 골짜기에 있는 가늘고 긴 땅으로 약 300평 정도되는 넓이다. 옛날에는 화전을 일궈던 곳으로 나무를 심기에는 그리 좋진 않지만 연못이나 논으로 만들기에는 아주 적당한 땅이었다. 물이 많은데 바로 곁에 너비 1미터 정도의 개울이 흘렀다. 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두 줄기가 있었다. 산나리와 산벚꽃, 호오노키 같은 2차림이 가까이 있기도 했다. 바이오톱을 만들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인 셈이다. 수생곤충이나 많은 양서류는 물가와 숲을 오가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숲과 물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바이오톱 만들기의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다.

활동 3 : 바이오톱 만들기(생물을 부르자! 먼저 연못 만들기)

1) 4월: 바이오톱이 뭐야?

- 바이오톱이 과연 무엇일까? <동식물연구소>그룹 활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히코타니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서 마을의 자연을 둘러보고 다녔다. 계곡에 자리잡은 마을사람들의 생활이나 자연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장님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중학생의 지적호기심을 적절하게 자극했다.
- 바이오톱 예정지를 찾았다. 아이들 키보다 더 자란 갈대나 허리까지 오는 잡초 덩굴, 웅덩이도 많아서 실수로 빠지다보면 허리까지 쑥 들어가는 곳도 많았다. '이런 곳에 진짜 바이오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다들 말은 못했지만 얼굴에는 엄두가 안 난다는 듯 불안한 기미가 보였다.

2) 5월: 어떤 바이오톱을 만들까?

- 환경조사를 시작했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정하려면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수다. 곤충, 양생과 파충류, 식물, 수질검사 같은 것을 분담해서 시작했다. 벌레나 개구리를 만지는 게 처음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빠지거나 제외되지 않고, 소그룹을 나눠 각자 역할을 맡아서 조사를 시작했다.
- 각 소그룹이 조사한 결과로 보고회를 가졌다. 그 자료를 기초로 의논한 결과 '연못을 만들고 싶

다!'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못에서 키우고 싶은 생물도 잠자리, 메다카, 타이코우치, 개구리, 카와제미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책에서 조사한 정보가 넘쳤던 덕분에 많은 생물의 이름들이 거론되었다. 올해 바이오톱 작업은 '연못을 만들자!' 로 전원일치로 정했다.

- 연못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만들지 다들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바이오톱 예정지로 가려면 언제나 1미터가 넘는 개울을 건너야 하니 그 대책부터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못 전에 먼저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고 동시에 풀을 베어 땅을 정리하는 일을 진행하자고 정했다.
- 먼저 다리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해보는 큰 통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중학생도 어른들도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었다. 이장님에게 배워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 정지(땅 다듬기)작업은 며칠이 걸렸다. 삽이나 곡괭이 같은 장비를 들고 했지만 일은 끝없이 있었다. '과연 연못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힘은 들고...' 다들 지쳤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자 자신들이 만들 연못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 연못 만들기와 병행해서 개인이나 소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연구'도 시작했다. 양서류 생태조사, 새 관찰, 식물이름 조사 같은 테마를 정하고 각자 진행했다. 바이오톱 만들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진행시킨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각자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는 보고회도 열었다.

3) 6~7월: 1호 연못 착공

- 비닐을 치고 연못의 크기, 모양, 그리고 깊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연못은 표주박 모양의 길이 15미터, 폭 5미터, 깊이 20~50센티미터로 하기로 했다.
- 샘물을 끌어들여 반대쪽 개울로 흘러 나가도록 했다. 1학기 중에 연못을 완성하고 싶다는 의견들도 나왔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 연못 만들기는 그야말로 대공사다. 주위 나무들을 잘라 나무판을 만들어 벽에 대고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 흙을 파야 한다. 허리까지 진흙이 덮이고도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작업이었다. 반 정도 봤을 때 1학기가 끝났다.

4) 9~12월: 1호 연못 완성

- 연못 만들기를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그저 땅을 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다들 궁리하기 시작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야 효율적일지, 어떻게 하면 튼튼한 구조가 될지, 처음에는 자신들이 정한 모양에 맞춰 땅을 파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간단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면서

큰 문제가 터져 나왔다. 경사면에 연못을 만들다보니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산의 비탈진 곳에 연못을 만드는 것이라서 평평한 땅에 물을 가두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중학생들은 문제를 알아내고, '파기' 작업에서 골짜기 '메우기'로 작업방식을 달리했다. 이것은 무척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작업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 이 문제 말고도 물이 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그럴 때마다 문제를 알아채고 대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멋지게 1호 연못을 완성했다.
- 파티를 열어 다 같이 결실을 맺은 기쁨을 누리려고 연못 모양의 특대케이크를 만들고 초도 꽃았다. '해피버스테이, 1호 연못!' 하고 생일축하 노래에 흥 하고 초도 껴다. 바이오톱 작업 결실 1호, 연못 1호의 탄생이다.
- 작업 도중에도 잠자리, 물방개 같은 생물들이 연못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9월에는 수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소쩍새 어린새끼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외에도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만들고, 연장 창고 만드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느라 바쁜 2학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12월에는 모두 완성되어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어린 소쩍새도 기운을 되찾아 무사히 산으로 다시 돌아갔다.

5) 1~3월: 동식물의 유입과 산청개구리 산란

- 눈이 녹기 시작한 2월의 1호 연못에서 기뻐할 일이 생겼다. 산청개구리가 산란하러 연못을 찾았다. 겨울잠에서 눈을 뜬 개구리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해 조용했던 겨울 바이오톱이 아주 왁자지껄 해졌다. 연못에는 투명한 알들이 여러 개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의 활동이 어떤 풍경을 만들어 내는지 그 성과를 실감하였다.
- 1호 연못에서 살게 하려고 야생 흑메다카를 찾아 나섰다. 급하게 '메다카 탐색대'가 결성되었다. 먼저 정보를 모았다. 시청이나 자료관, 도서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가며 조사하기도 했다. 하시모토시내에는 야생 메다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다. 3월에 흑메다카의 생식장소를 드디어 발견해 다 같이 연못에 방류했다.
- 직접 만든 '히코타니 바이오톱'이라는 간판을 세우는 것을 끝으로 <동식물연구소 클래스>의 1년 활동은 막을 내렸다.

활동 4 : 평가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다)

체험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다

- ① 감정의 해방과 자신감
- ② 창조적인 사고와 다양한 분야에의 관심
- ③ 더불어 사는 즐거움

1) 감성 발달

: 무의식적인 해방감(땅을 일궈 연못이나 밭을 만드는 작업은 스케일이 큰 본격적인 일이다. 삽을 들고 풀을 깎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은 무의식 안에서 내면의 불안이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땀을 흘리며 흙이나 물과 접촉하며 계속 일을 하다보면 알 수 없지만 쾌감과 해방감, 그리고 아주 편안한 피곤함을 맛볼 수 있다. 진흙을 다루는 일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나 해방감을 안겨주는 게 틀림없다.)

: 성취감과 자기긍정감(일을 다 해낸 성취감은 각별하다. 바이오톱은 성공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연에 말을 걸어 실제로 성과가 드러나면 아이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완성까지의 과정이 힘들어서 한번에 해치울 수 없는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기쁨도 크다. 또 보통은 그 정도로 가깝게 느끼지 못했던 자연과 접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도 잦다. 이런 만남을 계속 쌓아가면서 중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 가운데 몇 차례나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고치기를 반복하면서 씩씩하게 자란다.)

2) 지적 발달

: 문제를 발견하는 힘(바이오톱 만들기는 정보를 모으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기초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때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다. 과거 자연이 어땠는지 사람들을 만나 듣기도 하고, 생물의 종류를 조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은 자료나 정보를 통해 무엇이 원인이 되어 자연이 변화했는지 계속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자기 스스로 주위의 자연을 민감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바이오톱은 문제를 발견하는 법뿐 아니라 역사나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폭 넓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연한 감성도 키울 수 있다. 자연이나 인간의 관계, 과거와 미래의 시간 축 등 관심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어 중학생들이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사회성 발달

: 자립심과 자기정체성 찾기(바이오톱 만들기는 혼자서는 안 된다. 큰 일을 장기간 계속 하면서 완성을 시키려면 몇 번이나 회의를 거듭해야 한다. 연못의 형태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어떤 동물을 불러들일지, 물은 어디서 끌어올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끝에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된다. 아이들이 확실히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주장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 인간관계의 기술, 더불어 사는 기쁨(그러나 자기 주장만으로는 회의도 작업도 진행이 안 된다. 상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바이오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모두의 의견을 조사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에 있어서의 역할분담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과 완성하고 난 뒤 기쁨을 나누는 일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분이 된다.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다. 또 발표기회를 갖거나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외부에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것도 사회 속에서 자신들을 강하게 의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활동을 마치고 : 아이들의 소감문

2005년 4월, 히코타니 바이오톱. 논두렁에는 온갖 풀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우구이스, 오오루리 같은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가까운 숲에서 들려왔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구루루~' 즐겁게 들린다. 연못 속으로 눈을 돌리면 그곳에도 각종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바이오톱은 5회째 봄을 맞았다. 1호 연못만이 아니다. 논도 벌써 만들어졌다. 그 곁에는 2호 연못도 있다. 중학생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 4년 전 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다. 동식물연구소는 올해 전국 학교 바이오톱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인 독일대사관상을 받았다. 대회 참가하는 우리들의 바이오톱 만들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최종심사에서의 중학생들 발표는 키노쿠니학원의 프로젝트활동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로서 바이오톱 만들기가 중학생들의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하기도 했다.

발표를 위해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때 중학생들의 머리를 가장 지끈거리게 한 것은 '키노쿠니의 바이오톱 만들기는 왜 이렇게 즐거운가'를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해온 바이오톱 만들기에서 했던 체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무척 어려웠다.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 피곤했다. 겨울은 춥고 1년 내내 흙투성이로 살았다. 게다가 회의를 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해왔을까? 하나는 우리들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들 힘으로 만드는 것이라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완성하고 난 뒤의 기쁨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내 스스로 해냈구나, 기특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아주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쾌함! 진흙 속에서 뒹굴다보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원시적인 본능'이 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 고생이 많긴 하지만 끝내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즐겁다.”

— 전국 학교 바이오톱 경연대회 발표 원고 중 —

중학생들이 자신들이 체험해왔던 것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되물으면서 그렇게 비로소 내놓은 답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되어 나왔다. 그들이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다.

바이오톱 만들기는 힘들다. 하지만 너무 즐겁다. 왜?

첫째, 교사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몸도 머리도 충분히 씬으로써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다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최고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은 모두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흙을 만지는 일은 무척 기분이 좋다. 치유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발표를 위해 고민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내놓은 답은 그야말로 학교의 프로젝트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랐으면 하는 내용 그 자체였다. 그들은 스스로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키워온 생각을 이 대회에서 보기 좋게 표현했다.

“우리 바이오톱 만들기는 일본에서 가장 즐거운 학교의 가장 즐거운 수업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키노쿠니학원에서의 학습의 기본원칙은 '자기결정'과 '개성'과 '체험'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충분히 관철시키기 위해 설정한 학습형태가 바로 프로젝트활동이다. 프로젝트활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추어 열중하고, 신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힘을 함께 지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프로젝트활동 속에 국어나 수학 같은 기초교과 학습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함으로써 분리되지 않은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려는 것이다. 추상적인 학습의 결과로 단순히 기억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식이나 기술을 창조하는 태도와 힘까지도 함께 습득하게 되면서 넓게 생각하는 힘도 기르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키노쿠니학원에서의 교육평가는 교사자신이 대상이 되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아이는 '감정적으로 해방된 아이' '자유로운 지성을 발달시키고 있는 아이' '민주사회에 적합한 도덕성을 기르고 있는 아이'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제안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높은 자질함양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이외의 활동으로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학습의 중심에서 지 못하고 있다.

'체험과 일'을 학습의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는 키노쿠니학원의 사례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구체적인 작업(체험)과 학습성과를 통일시킬 수 있는(감정과 지성의 자유가 조화롭게 발달된)발상의 전환을 마련해 준다.

참고자료

- 김은산 역(2001). 키노쿠니어린이마을. 도서출판 민들레.
- きのくに子どもの村学園(2008). 教育改革は 체험学習から.きのくに子どもの村学園.

녹 · 색 · 체 · 험

일본의 환경사업 진흥전략
키타큐슈 에코타운

오해섭 ²⁷⁾

→ 개요

일본의 근대산업은 1901년 처음으로 본격적인 근대식 용광로를 가진 국영 야하타제철소가 조업을 시작한 키타큐슈시에서 시작되었다. 키타큐슈 공업지역은 일본의 4대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일본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산업공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해문제를 시민, 행정기관, 기업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전에는 대장균 마저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었던 도카이만은 이제 100여 종 이상의 어패류가 서식하게 되었다. 「일곱색의 연기」라고 하여 일본에서 가장 심한 매연으로 휩싸였던 이 지역의 하늘은 중앙정부로부터 「별이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개선되어 지역주민들은 아름답다운 바다와 하늘을 되찾게 되었다.

| 공해 극복의 경험을 살린 환경국제협력

키타큐슈시는 공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개발도상국의 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1980년대부터 전문가 파견과 연수원 유치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시민·행정·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온 노력은 국제적으로 환경개선의 성공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키타큐슈 지역의 글로벌 연수원 유치실적(2008년 현재)

지역	유치 현황
북아메리카	16개국 248명
유럽	22개국 219명
오세아니아	9개국 29명
아시아	43개국 3,320명
남아메리카	11개국 619명
아프리카	29개국 497명
합계	130개국 4,932명

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연구위원

[표 2] 키타큐슈 지역에 대한 국제적 평가

년도	평가 내용
1990년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글로벌 500」 를 수상함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유엔 지방자치단체 표창」 을 수상함
2000년	키타큐슈시에서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개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Summit Meeting)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모델로 「키타큐슈 이니셔티브」 를 실천계획에 명기
2006년	왕가리 마티이씨(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환경문제는 키타큐슈시에 물어라」 고 선언하였음
	미국[TIME]지에서 키타큐슈시를 환경 개선 모델로 소개함

| 키타큐슈 에코타운사업 전개과정

키타큐슈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제조업 도시로서의 산업기반과 기술력, 공해 극복의 과정에서 축적된 인재, 기술, 지식 및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보전정책」 과 「산업진흥정책」 을 통합한 독자적인 지역정책으로서 1997년 7월부터 와카마츠쿠 히비키나다 지역을 중심으로 「키타큐슈 에코타운 사업」 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근의 키타큐슈 학술연구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분야의 「기초연구 및 교육」 에서부터 「기술 및 실증연구」 와 「사업화」 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 8월에는 「에코타운 사업 제2기 계획」 을 책정하여 리사이클 이외에도 새로운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대상 영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존 산업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역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1) 키타큐슈 에코 콤비나이트 추진 사업

지역 단위로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절약 등을 실현하는 「키타큐슈 에코 콤비나이트 구상」 을 추진하여, 폐기물과 부산물의 자원순환이나 이용되지 않은 에너지의 유용한 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 및 신규 사업 유치를 지향하고 있다.

2) 키타큐슈 에코 프리미엄 산업 창조사업

환경 부하를 낮추는 부가 가치를 지닌 지역 상품이나 기술, 산업활동 중에서 「키타큐슈 에코 프리미엄」 을 선정하여 지역 산업계 전체의 환경을 배려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3) 「에코 액션 21」 인증 등록 지원 사업

주로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에코 액션 21」의 인증과 등록을 목표로 한 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을 배려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4) 중·일 순환형도시 협력 사업(중·일에코타운 협력)

키타큐슈 에코타운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중국 칭따오시와 텐진시에 순환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정보 차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키타큐슈 에코타운 사업의 특징

- ① 산·학·행정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② 기존 산업 단지 및 학술연구도시와 근접해 있다.
- ③ 광대하고 저렴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광역적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다.
- ⑤ 에코타운 내 각 기업, 복합 핵심시설, 시내 재활용사업, 구역 내 관리형 처분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처리를 할 수 있다.
- ⑥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 ⑦ 시청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수속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 ⑧ 시의 독자적인 조성제도를 마련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다.
- ⑨ 원료인 폐기물 확보 및 재생품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 ⑩ 환경미래기술개발 조성제도를 통해 환경 분야의 실증연구, 사회시스템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큐슈시의 환경산업 진흥전략
기초연구·실증연구·사업화 과정

① 교육·기초 연구 - 환경정책이념 확립 - 기초연구 인재육성 - 산학협력거점	② 기술·실증 연구 - 실증연구 지원 - 지역기업의 인큐베이트	③ 사업화 - 각종 리사이클사업, 환경 비즈니스 전개 - 중소 및 벤처사업 지원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실증연구 기관	종합환경 콤비나트
■ 대학 · 기타큐슈시립대학 국제환경 광학연구과 · 큐슈공업대학 대학원 생명체공학연구과 · 와세다 대학 대학원 정보생산 시스템 연구과 · 후쿠오카대학 대학원공학연구과 ■ 연구기관 등 · 후쿠오카현 리사이클 종합 연구센터 · 후쿠오카대학 산학관연계센터 · 기타큐슈 산학연계추진실 · 큐슈공업대학 첨단 에코피팅 기술 연구개발센터 · 쿠마모토현립대학 아리조노 연구실 히비키노분실 · 기타	■ 후쿠오카대학 · 자원순환·환경제어시스템 연구소 ■ 큐슈공업대학 · 에코타운 실증연구센터 ■ 신일본제철 엔지니어링(주) · 기타큐슈 환경기술센터 ■ 후쿠오카현 리사이클 종합 연구센터 · 실증시험기관 ■ 각 분야 실증연구 · 처리장 관리기술 · 처리곤란물질 적정처리기술 · 폐기물의 재자원화기술 ■ 기타큐슈시 에코타운 센터 ■ 기타	■ 리사이클 공장 직접운영 · 페트병, 가전, OA기기, 자동차, 형광등, 의료용 도구, 건설혼합 폐기물(2개소), 복합핵심시설·비철금속 ■ 현지 중소 벤처기업(히비키리 리사이클단지) · 식용유, 유기용제, 폐종이, 캔 등 ■ 자동차해체, 중고부품업 고도화 ■ 리사이클공장 · 빠칭코, 폐목재, 폐플라스틱, 음료용기기, 자동판매기 ■ 풍력발전소(2개소) ■ 기타 리사이클 및 재활용 공장 · 발포스티롤, OA기기, 포밍억제제 화학섬유 자원화

[그림 1] 기타큐슈시의 환경산업 진흥전략 기초연구·실증연구·사업화 과정

에코타운 진출에 따른 지원제도

기업 입지에 관한 보조금		
명칭	국제물류특구 기업집적 특별조성	
입지 요건	2008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간 특구활성화 중점구역에서 신설 및 증설에 착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조업을 개시할 것.	
업종 요건	제조업 등(리사이클 산업시설 포함)	
투자 요건	대 기업 5억 엔 이상 중소기업 2억 5천만 엔 이상	시의 산업용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투자 요건 및 신규고용 요건의 적용 없음
신규 고용 요건	제조업 10명 이상 비제조업 5명 이상	
보조율	① 취득분 : 【신설】 용지비를 포함한 설비투자액의 5%(시의 산업용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10%) 【증설】 용지비를 포함한 설비투자액의 3%(시의 산업용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6%) ② 임차분: 연간 임차료의 1/2(초년도에 한함)	
한도액	상기 ①②의 합계액이 10억 엔	
연구개발에 관한 보조금		
명칭	환경미래기술개발 조성금	
대상자	① 실증연구: 키타큐슈 에코타운 실증연구 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자(시내 기존 설비 등을 이용해 시내에서 실증연구를 하는 경우는 대상) ② 사회시스템연구: 시내에 사업소(연구기관을 포함)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시내 기업과 공동으로 주로 시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자 ③ FS연구: 시내에 사업소(연구기관을 포함)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시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시내 거주자	
대상 사업	실증 연구	폐기물처리·리사이클기술, 환경보전기술,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새로운 에너지·에너지 절약기술 등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회시스템연구	환경산업의 전개에서 중요한 원료 확보나 물품 유통 등 순환형 경제 사회의 실현을 향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연구개발
	FS연구	실증연구를 하기 전 단계로서의 기술적 내용, 시장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보조율	① 시내의 중소기업인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시내에 입지하는 교육연구기관 및 시내의 중소기업인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는 대상 경비의 2/3 이내 ② 상기 이외의 대상 경비의 1/3 이내(중점 분야의 경우는 1/2 이내)	
한도액	① 실증연구: 2,000만 엔/년(최장 3년간) ② 사회시스템·FS연구: 200만 엔/년	

| 일본의 청소년 환경교육 현황

일본의 환경교육은 전후의 심각한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긴 공해교육과 자연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보호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공해문제가 여러 가지의 규제와 공해방지기술의 개발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공해와 자연파괴를 뛰어넘어 환경과의 친숙함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등의 영향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공해교육, 자연보호교육으로부터 환경교육으로 관심이 옮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정부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시민단체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재활용운동, 환경녹색화, 야생동물보호, 내셔널 트러스트 단체결성, 국토청결운동, 계몽, 환경오염조사, 자연관찰 등을 포함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행정적인 대처

폐기물 등의 생활형 공해를 고려한 지방자치정부는 1980년 중반에 환경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에 착수하여 환경청도 시, 도, 부, 현·정령 지정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환경교육 커리큘럼'을 '지역환경보전 기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의 활동은 지침서 작성, 강연회, 심포지움, 포스터, 환경백일장 등 상당히 다양하다. 또한 환경청은 '모두 함께 만드는 더 나은 환경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환경교육지침을 작성하고 환경교육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환경보전활동 추진실을 확충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행정에 자극을 받아 문부성도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환경교육 지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환경교육에 착수하였다. 문부성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시, 도, 부, 현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독자적인 환경교육 지도자료의 작성과 함께 교원연수에 환경교육연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환경교육이 점차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학습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행정부서간의 협력관계 확립이나 기존의 종적인 행정체계에 따른 문제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다.

2)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1992년부터 실시된 신학습 지도요령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환경영역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바뀌어 환경교육 지도자료가 작성되는 등, 비로소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개발하고 직접적인 체험학습과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개설된 대부분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도덕교육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된 현상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제해결능력과 태도의 계발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여 진다.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오늘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장래활동을 위한 바탕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학교환경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확보와 정비, 환경교육의 장 확보, 안전대책 등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직원들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3) 시민과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1987년 일본형 자연환경교육의 확립을 목표로 한 키요사토(清里)환경교육포럼(현재는 일본 환경교육포럼, Japan Environmental Education Forum, JEEF)이 조직되어 환경교육관점에서 마을만들기와 환경교육의 사업화, 인재 양성 등 자연과 야외에서의 환경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일본 환경교육학회가 발족되었다. 사회교육의 분야에서는 전부터 있던 환경보호단체가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가 많이 탄생하였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지도자양성이나 교재개발 등의 환경교육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1991년에 경제단체연합회는 지구환경교육헌장을 발표하고 기업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자세를 명확히 하였다. 프레온가스가 대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이것을 사업화하려는 에코비즈니스 분야도 발전하여 환경교육의 교재개발과 시설계획 등의 사업이 전제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전략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나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가장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나라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먼저 환경에 관한 기본 지식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인지와 함께 실천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며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기존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주로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물질의 개발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심각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미래에 있어서는 더욱더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주변 환경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보다 나아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 각자가 환경에 대한 태도변화와 함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도변화와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중요한 네 가지 접근방법은 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교육실시, ② 지역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 ③ 주민들의 행동유도를 통해 태도변화 방안, ④ 환경관련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 및 환경정책 등의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직·간접적인 태도의 변화를 모색 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힌 대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문제해결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 혹은 단체나 지역주민 모두가 문제해결의 강한 의식과 행동의 생활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지녀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공간임을 인식하면서 생활할 때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및 행동을 위한 접근방안이 될 수가 있다.

참고자료

- 김동규(1996). 세계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 오해섭(1998). 청소년의 환경책임성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키타큐슈에코타운(2004). 일본의 키타큐슈 에코타운환경사업 진흥전략 소개 자료집.
- Ballantyne, R.R., & Packer, J.M.,(1996), "Teaching and learning in environmental education; Developing environmental conception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7(2), pp. 25-32.

녹 · 색 · 체 · 험

북유럽의 환경보호체험
Green Flag

임희진 ²⁸⁾

→ 개요

환경선진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환경교육을 학교 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아동·청소년기의 학교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세대가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 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환경교육’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고 미래 사회를 생각하는 교육으로서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 프로그램 소개

| 각 주체에 의한 환경교육 사례

북유럽의 환경교육은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① 지역의 중점 교육내용으로 설정

북유럽의 학교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으로 나뉜다.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그 지역의 특수성, 교육 요구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중점 교육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위원회에는 시의원도 참석하여 지역의 교육지침을 정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교육을 중점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원연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강사는 대학에서 출강하고, 보육기관의 교사에서부터 평생교육 지도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배운 것을 자신의 교육에 도입할

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부연구위원

수 있다. 공기와 물에 관한 문제,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종에 대한 지식, 환경정책 등에 대해서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된다.

③ 학생들의 환경 데이터베이스 이용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고 교사들은 교육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컴퓨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환경교육 버스 ‘이동하는 자연학교’

‘이동하는 자연학교’ 버스 안에는 현미경, 스크린 등 실험이 가능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과학 교사자격을 가진 지도원이 탑승하고 있고 학생들을 태우고 자연으로 나가 실험하고 교육한다.



◀환경교육 버스 ‘이동하는 자연학교’

2) 학교의 환경교육

① 쓰레기 수거 및 분리

학생들은 매주 한 번은 숲으로 나가 쓰레기를 줍고 가지고 돌아와 분리함에 넣는다.

②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를 활용하여 퇴비화 한다. 지렁이 퇴비화법을 통해 순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지렁이를 활용한 퇴비화 장치

3) 기업의 후원에 의한 환경교육

① Volvo사의 인터넷에 의한 글로벌 환경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실효과와 오존층 등에 대해 학자에 원고를 의뢰하고 6개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퀴즈 등을 도입하고, 정답에 대한 포상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에 부여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남아프리카 한 마을의 학생 300명에게는 이를 프린트해서 보내고 있다.

② Keep Sweden Tidy의 Green Flag 제도

Keep Sweden Tidy 재단은 환경교육의 교재 개발과 Green Flag 제도를 운영하고 EU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Green Flag는 ‘학교판 ISO’ 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코펜하겐시가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리를 위해서 물을 절약하자” 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도 가지고 가 그것을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절수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최초의 Green Flag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학생 상호간에 토론하여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발견하고, 체험, 조사, 평가, 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실행단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거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ISO 14001의 관점이다. 이를 간소화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외부에서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한다. 그 증명이 Green Flag인데, 평가는 1년마다 실시되며, 보고서를 검토하여 Green Flag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Green Flag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Green Flag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활동 내용, 지도자 서명, 교사와 학생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된 환경위원회에서의 회의록 등이다. 그 외에 사진, 그림, 비디오 등을 첨부하여도 좋다.
- 신청 후 6개월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내용은 아동들이 어떻게 활동해왔는지를 평가한다.
- 인정 1년 후 Green Fla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활동을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Green Flag 발행국은 현재 25개국으로, 유럽 23개국,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이다. 리포터는 고등학생들이고 이들은 하나의 과제를 만들어서 세계인들과 교류한다. Green Flag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 때 학생의 의견이 중요시된다. 에너지, 재활용, 숲의 생태를 주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

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복사를 할 때는 50% 이상 이면지를 사용하고, 학생의 1/3은 자전거로 통학하기 등이다. 결국 학교가 교육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함으로써 학교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아동·청소년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에의 의식개혁과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③ 기업과 NPO와의 연계에 의한 환경교육 Natural Step

Natural Step은 스웨덴의 의사이자 암 과학자인 Karl-Henrik Robèrt 박사에 의해 1989년에 시작된 환경단체로, 당초 대기업과 조직이 후원하여 환경책자와 오디오 테이프를 모든 가정과 학교에 보낸 것이 시작이다.

-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젊은이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포럼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대표자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고등학생 대상: 19개의 과제 중 선택하여 활동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퇴비를 만드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시의회에 찾아가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을 구성원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 과제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과제 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관련 기업에게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기업도 청소년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중·고등학생 대상: 환경토의가 있다. 수년전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중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물의 노벨상 청소년부문에서 우수상을 획득한 바 있다.
- 세미나: 4일간의 세미나에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그룹별로 각 자방자치단체에 가서 환경을 분석한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가능한 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거시적인 환경상(環境像)을 알게 되는 것이다.

| 환경교육의 발전 방향

1) 아동기부터의 환경교육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는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어른들이 어떠한 생활방식을 하고 어떤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현재 사람들의 생활습관 및 태도가 지구환경을 결정해간다. 그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민, 자치단체, 기업, NGO에 의한 환경교육이 긴급한 과제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역점을 두는 것은 교육

받은 아동들이 가정에 돌아가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학교에서 지역과 세계에 퍼져가기 때문이다. 환경에의 의식을 변혁하고 각각이 주체로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지역자원의 공유 및 체험에 의한 즐거운 환경학습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즐거운 활동과 놀이 중에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깨달아 가는 즐거운 환경학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도원이 탐승하고 있는 ‘이동하는 자연학교’와 학교주변 숲에서의 환경교육과 같이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환경과제를 발견한다.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에서 스스로 생물, 물, 초목, 흙 등을 조사해 본다. 학교 교사와 지역 주민, 자치단체, 자연보호단체 등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나 가이드북을 작성한다. 또 인터넷 등에서 환경퀴즈를 실시하고, 학교 단위로 성적상위 학교와 학급을 ‘환경투어’에 초대하는 것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참가형 환경활동

환경교육의 방침은 스스로 참가하는 활동이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급식의 잔반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 학생 리포터에 의한 홈페이지 구축: 전국에서 학생 리포터를 모집하여 특정 과제에 대해서 지역의 정보 및 의견 교환
-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학교와 학생, 교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 EU의 생태학교 및 Green Flag와 같이 학교전체에서 추진하고, 매년 검증하면서 계속적으로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ISO 학교판 만들기

4) 창조적 환경교육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열의 있는 자치단체 직원과 학교 교사 또는 단체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기업은 이벤트에의 참가는 있었으나 학교나 학생과의 직접적인 관여는 거의 없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영역을 넘어 협력하는 창조적인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 지역기업의 후원형: 지역의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지역의 학교에 환경교육 교재를 배포
- 프로젝트형: 환경 과제를 설정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등학생 그룹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이 때 과제에 따라서는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업도 다음 세대의 가치관

을 알기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미래 세대의 아이디어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 환경캠페인형: 젊은 층에 인기와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들에 의한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행사(스포츠나 콘서트)의 운영에는 재활용, 에너지 절약형의 소재를 사용한다.
- 동화나 옛날이야기에서 ‘순환의 가르침’을 발견: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환경교육 외에 동화나 옛날이야기 중에서 순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이야기 안에서 환경시점을 발견하여 배우고 자신의 생활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북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NGO 등 다양하다. 또한 실제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는 하나의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라, 다기관이 연계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계의 형태는 △자치단체의 의회 및 행정방침과 실제 학교교육의 연계, △학교의 활동 장소가 교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 △환경교육이라는 특정 교과가 아니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 간의 연계, △대학과 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연계, △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기업과 학교교육의 연계, △인터넷을 이용한 다른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에도 친환경 교육의 좋은 사례가 있다. 서울 최초로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 문래초는 학부모와 함께 텃밭을 일구며 학교와 가정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 계발활동부서에 환경사랑부(별새) 운영, 학년별 친환경 먹을거리 수업 전개, 청소년단체(아람단) 활동을 통한 직접 심고 수확하는 친환경 농사체험, 학교 뒤뜰에 친환경 텃밭을 만들어 호밀, 메밀 등 경작, 학교 정문과 후문에 꼬마 논을 만들어 모내기과 추수 체험, 친환경 교사동아리 조직, 환경관련 행사일 교육, 초록학교 협약식, 교사 친환경연수, 학부모 친환경연수, 안전한 먹을거리지킴이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문래초 윤관호 교사는 “일회적인 환경체험 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고 따라서 “환경전문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원과 도움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북유럽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기관, 지역사회 자원, 기업 활동, NGO가 그 틀을 벗어나 협력하여 만들어 내는 환경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윤관호(2008). 친환경 급식이 대안이다. 새교육, 제647호, pp. 47-53.
- Keep Sweden Tidy Homepage(2010).
<http://www.keeptidysweden.org> (검색일: 2010. 3. 12)
- The Natural Step Homepage(2010).
<http://www.naturalstep.org/en> (검색일: 2010. 3. 17)
- 槇村久子(2002). スウェーデンの環境教育に見る多様な主体と協働. 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研究, pp. 5-17.

미 · 디 · 어 · 체 · 험

캐나다의 인터넷안전 사용지침(교사용)
kit101

성윤숙 ²⁹⁾

→ 개요

Industry Canada는 1997년 캐나다 정부가 'Connecting Canadians Agenda'의 일환으로 발족되었다. 세계 속에 있는 캐나다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글로벌 리더십을 양성하며, 지식경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이루고 앞서 나가는 정보조직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캐나다 정부에서 제작한 kit101은 교사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안전 사용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DVD이다. 영어와 불어로 구분되어 제작되었으며 매뉴얼도 영-불어로 만들어졌다.

→ 체험활동 사례

kit101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성 있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많은 조직들이 인터넷 안전에 대해 다른 요구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kit101은 좁은 교실이나 대강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DVD 내용은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사이버왕따, 온라인게임, 웹캠에 대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상세한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터넷 정보를 담고 있다.

교사에게 제공하는 kit101로써 학생 사례 3가지, 웹사용, 인터넷은 무엇인가?, 컴퓨터 사용, 채팅, 무선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으로부터 자녀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체험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터넷 안전을 위한 교사 가이드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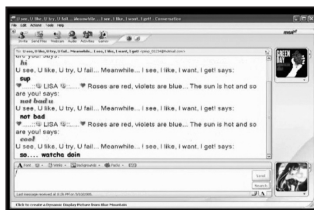
〈그림 2〉 사실에 근거한 학생들의 사례 snapshots 제공

학생들의 사례 이야기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통한 나레이션 설명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총 3명의 학생 사례를 담고 있다.



〈그림 3〉

학생들이 직접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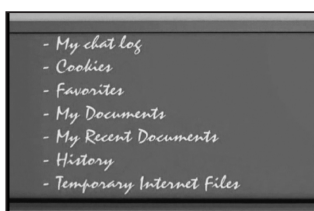
〈그림 4〉

14살의 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낯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나이, 거주지 등을 물으며 접근하고 있다.



〈그림 5〉

인터넷의 역사를 알기 쉽게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고, 어떻게 사용되며 발전해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5〉

내용

- 채팅 일지
- 쿠키(임시인터넷 정보)
- 즐겨찾기
- 내 문서

- 내 최근 문서

- 기록
- 임시 인터넷 화일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kit101은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소스를 교육자와 학부모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활동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활용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인 기술과 방법(critical thinking skills and tools)을 갖도록 돕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모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자녀들의 올바른 온라인 사용방법과 미디어 교육에 관한 교육교재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kit101 “An Educator's Guide to Internet Safety” CD & Manual Book(for youth)
- kit101 “An Educator's Guide to Internet Safety” CD & Manual Book(for parent)

→ 개요

캐나다에서는 2007년 11월 5~9일을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전 캐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에는 캐나다 가정과 학교, 단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장려하였다. 자녀들의 사이버 활동을 부모가 활동적으로 개입하는 e-Parenting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돕고, 불어로는 Devenir e-Parent로 프로그램을 표시한다. 전국의 크고 작은 학교와 학급에서 시작한 몇 개의 큰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MNet은 이 주간에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이메일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 기사 30개 가량을 취합하여 교육자료로 출판한다. 2008년에는 11월 3~7일에 실시했으며, "Think Critically, Act Ethically"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과 온라인 행동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 체험활동 사례

| 단체를 위한 Devenir e-Parent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을 실시하는 동안, Devenir e-Parent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상호적인 개별지도이다. 프랑스어를 쓰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온라인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 엄마 엘리스(cyber-mom Alice) 개별지도는 젊은 사람들이 리서치를 위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지 설명해준다. 또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거나 마케터들의 목표가 되는지 보여주는 규격화된 시리즈물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자료제작 지원은 현재 산업재정 지원부 프랑스 언어 사용 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Bell 캐나다에서 하고 있다.

| 캐나다 가정학교 연합(CHSF) 부모 교육 프로그램

Bell 캐나다의 지원으로 MNet과 CHSF는 2년 동안 파트너십으로 전국의 영어학교 심의회에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Net 세대의 부모되기’ (Parenting the Net Generation) 워크숍을 실시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하고 있다. 워크숍 형태의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2007~8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학교를 위한 자료

1) 4~12세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Growing with the Net)은 TELUS의 지원을 받아 MNet의 인터넷 자각 워크숍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의 전문적 개발워크숍이다.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사회심리학적인 발달 특성 관점에서 각 연령별로 ‘자녀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인터넷 활동’ 사진을 제공한다. 워크숍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인터넷 내용과 그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비판적 사고와 긍정적 인터넷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전략을 제공한다.

2) 사이버 왕따 : 윤리적인 온라인 행동 장려

사이버 왕따는 교사와 학교 지도자가 긴급히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다. 교사 및 지도자를 돕기 위해 MNet은 캐나다 교사 연합, 적십자 존중 프로그램, McGill 대학교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따돌림을 막을 수 있는 전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후원으로 이중 언어(영-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예의 있고, 긍정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왕따의 윤리적, 법적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시험용으로 6개 학급에 5~12학년 학생을 돕기 위한 교수법을 포함하고 있다.

3) 인터넷 이용 학생들의 개별지도를 위한 허가증

인터넷에 대한 허가 프로그램은 교사를 위한 온라인 평가와 지침을 비롯하여 4~8학년 학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개별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언어로 된 이 프로그램은 2008년 11월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에 실시될 예정이며 긍정적이고 풍부한 온라인 경험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캐나다의 미디어교육은 캐나다 미디어교육 연합과 교사 연합,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 MNet이 제작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설명서이다. “Make it Happen”이라는 모토로 학교와 집, 그리고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미디어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사고(thinking)하고 행동(action)하는 캐나다인이 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말하는 미디어교육은 ‘개인이 미디어에 대해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특성, 기술,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 제작에 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게 하는 과정(“What is Media Education?”)’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모든 학교의 교실에서 미디어 내용을 가지고 와 교실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하고 평가, 발견함으로써 실제 세계와 미디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함으로 미디어교육 수용자를 설득하고 있다.

첫째, 미디어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멀티미디어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 이해, 헤아리도록 격려한다. 활동적이고 차별적인 미디어 소비자인 동시에 사용자가 되라고 가르친다.

둘째, 미디어교육은 역사, 국어, 건강, 시민의식, 창조적 예술로써 전통적인 그런 주제들에게 즉시성, 타당성을 부여하여 교실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디어교육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인식과 분석, 관리 등 학생 중심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현대 교수법을 구체화하고 장려한다.

넷째, 미디어교육은 아이들이 즐기는 삶의 일부인 음악, 만화, TV, 비디오게임, 인터넷이나 심지어 광고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학습이 시작될 수 있는 음성 교수법 접근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섯째, 미디어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해서 이해하는”(understanding by doing) 방법과 커뮤니케이션의 복잡한 형태 사용을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시장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도록 멀티미디어 도구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여섯째,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정치적 프로세스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 미디어교육은 “진짜 세상”(real-world)의 이슈들을 알려준다. 또한 스스로 활동적인 시민과 공공토론에 잠재적인 공헌자가 되도록 돕는다.

일곱째,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디어 학습은 미디어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사회 안에서 다른 조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덟째, 미디어교육은 음악, 패션, TV 프로그램, 영화, 광고 같은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태도, 라이프스타일, 자아상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돕는다.

아홉째,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폭력과 실제 폭력, 미디어 영웅과 실제 영웅, 미디어 역할 모델과

실제 역할과 기대를 비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제와 환상 사이를 구별하도록 비판 미디어 재현 (critique media representation)을 가르친다.

열째,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처음하게 될 때,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조력하고, 비판적 사고 기술과 가장 효과적인 검색 방법을 개발시키며, 정보 평가와 인증하는 것과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교육한다.

참고자료

- Media Awareness Network(MNet): Media Education "MAKE IT HAPPEN"

지 · 원 · 체 · 계

핀란드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기관
교육부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실

박영균 ³¹⁾

→ 개요

| 국토 및 국민

핀란드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약 1.5배 정도인 반면 인구는 우리나라의 1/9정도인 521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민족 구성은 핀란드인이 93%, 스웨덴인이 6%, 기타 사미족과 러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국토의 75%가 산림지대이고 경작지는 약 8%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핀란드의 국내총생산액(GDP)은 1,609억 유로이며, 국민 1인당 GDP는 31,723유로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 교육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과 기초중등교육이 통합된 형태의 기본교육과정(7~16세, 9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상급중등교육과정(3년), 전문대(polytechnic)와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daycare center)이나 부모에게 맡겨진다. 대부분의 6세 아동은 탁아시설이나 종합학교 부설 취학 전 과정(preschool)에 등록하고 있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경제 형편에 따라 소정의 장학지원혜택(용자 등)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약 GNP의 약 6.5%를 공공 교육부문에 지출하고 있다.



※출처: [세상읽기] 핀란드 교육 이야기, 경쟁에서 협동으로(한라일보 2009.11.26)

| 아동·청소년 정책

핀란드는 2006년에 제정된 청소년법(Youth Act)에 따라 교육문화부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업무와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교육문화부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국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아동·청소년 업무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업무의 주요 협력 파트너는 교육문화부 교육·과학정책실의 일반교육국과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이다.

핀란드의 청소년법에 의하면 정부는 4년마다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청소년법에 따라 29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일명 「아동·청소년정책 프로그램: Programme for Child and Youth Policy」 이라고도 한다. 현재 핀란드 정부의 주요 아동·청소년 정책은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 소외청소년 방지를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핀란드에는 전국에 걸쳐 10개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산재해 있다. 안알라 국립청소년수련원(Anjala National Youth Center)은 국립 수련시설로 헬싱키에서 동북 방향으로 90여분 정도 걸리는 안알라코스키(Anjalankoski)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키미요키(Kymijoki) 강가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며, 핀란드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숙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모든 청소년수련원 이용자의 50% 이상은 반드시 청소년이어야 한다. 특히 국제관계를 중시하며 러시아와 국경이 가까운 관계로 러시아의 청소년들도 이곳에 수련 활동을 하러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 국립 청소년수련시설도 아시아 주변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처럼 핀란드는 교육문화부가 학교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을 함께 주관함으로써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직업훈련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핀란드에는 분명 학생은 물론 청소년도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소년기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1,100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 시설과 기관을 통해 체험적 요소가 담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청소년 기관과 시설은 안알라 국립청소년수련원(Anjala National Youth Centre)과 청소년 미디어센터(Youth Media Centre – Hat Factory), 그리고 직업훈련센터(Blue Workshop – Sininen Versta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청소년시설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알라 국립청소년수련원(Anjala National Youth Centre)

핀란드에는 전국에 걸쳐 10개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안알라 국립청소년수련원은 핀란드의 10개 국립수련원 중 하나이다. 10개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아텔라, 히바릴라, 마르티넨, 메차카르타노, 오이반키, 필스팔라, 시오테, 바사토카, 안알라, 비야 엘바 청소년수련원이다. 이 중 안알라 청소년수련원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동북 방향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자동차로 약 90분 정도 걸리는 안카푸라(Ankkapurha)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안알라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한 지역에는 키미요키(Kymijoki)라는 강이 완만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보트타기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수련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연중 숙식제공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안알라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계절별로 여러 가지 활동거리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수련활동 대상 집단의 요구(needs)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모험활동과 스포츠 활동, 자연과 동물, 카누 타기, 급류 타기, 공놀이, 양궁, 사격, 눈밭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제지(製紙)활동, 식물 짜기 및 염색, 양초 만들기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수련원은 국제관계를 중요시하여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관계로 러시아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매년 이곳 수련원을 찾아오기도 한다. 현재 핀란드 내의 10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은 반드시 고객 중 50% 이상이 청소년이어야 하는데, 이곳 안알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참가비율이 약 75%를 넘는다.

2) 청소년 미디어센터(Youth Media Centre – Hat Factory)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미디어센터는 과거에 모자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02년도에 현재의 미디어센터로 개설했다. 기관으로 상근지도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라디오 프로그램 편집 제작 등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술적 가치(technical value)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민 자녀들인 다문화 청소년들(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앙골라,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 등 세계 곳곳)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3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이주해 오는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청소년 중 일부는 실제로 직업을 구하여 사회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있거나 또는 가장 잘 하는 분야를 공부한 후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한다. 헬싱키 시에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핀란드의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활동분야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있는 청소년 미디어센터의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구하는 새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심성계발과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직업훈련센터(Blue Workshop – Sininen Versta)

헬싱키에 소재한 청소년 직업훈련센터는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에는 런치카페(lunch cafe)와 염색, 바느질, 연극 등 4개의 작업장(workshop)이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핀란드 내 미고용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과거에는 헬싱키 시청 산하기관이었으나 지금은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센터의 4개 작업장에서는 각각 8~10명 정도의 미고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하자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 또한 하자센터와 유사하다. 런치카페에서는 아침과 점심 등 음식 만들기 및 서빙훈련을 받으며, 센터 내에 마련된 작은 cafe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식사를 실비로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업청소년 대책으로도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직업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직업을 탐색하고 자기가 어느 직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직업탐색 프로그램이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의 한 유용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 각 작업장별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 훈련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질 높은 훈련을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곳을 거쳐 나간 청소년 중 성인이 되어 핀란드에서는 꽤 유명한 배우로 성장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핀란드의 직업훈련센터에서 받은 느낌은 이러한 사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이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으로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 및 시사점

| 핀란드의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1)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핀란드는 교육정책과 아동·청소년정책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소관 업무로 지정해 놓았다. 교육문화부 내에는 교육 담당 장관과 청소년 담당 장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만큼 교육과 아동·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설립 등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학생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기도 한 젊은 세대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청소년관련 인프라 시설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풍부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핀란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각 시설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인 10개의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모험에서부터 개척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청소년 기관에서는 직업체험에서부터 인성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다.

예를 들면, 국립청소년수련원에는 주로 모험활동, 야영활동, 자연탐구, 식물 제조 등 실내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디어센터와 같은 청소년기관에서는 음악, 미술, 비디오,

연주, 영화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험적 요소를 지닌 청소년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센터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여러 활동장(workshop)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고 장기간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전 세계 국가 중 교육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핀란드다. 한국에서도 '핀란드식 교육'을 대안으로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신문 기사와 책들만으로도 이 같은 열기는 가늠할 만하다.

핀란드의 교육이 이토록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때문이다. 핀란드는 지금까지 3회 시행된 이 평가에서 항상 세계 1위의 학력을 유지해 왔다. 핀란드의 교육이 이처럼 성취력이 월등한 것은 아마 종합학교부터 시작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핀란드 교육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자 가장 발 빠르게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한국 못지않게 자국의 교육문제점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일본은, 두 번의 PISA결과가 나온 이후 '핀란드 참배'라는 아유를 들을 정도로 끊임없이 핀란드를 방문했고, 그 결과를 자국 교육에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왜 '핀란드 교육이 교육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나?' 라는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은 바로 교사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이야말로 핀란드 교육을 받쳐주는 기둥이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사회적 지위가 의사와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왜 이토록 인기가 있을까?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에서도 교직은 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OECD 통계는 2003년 기준
OECD는 3년 단위로 평가 실시.
지난해 평가결과는 미발표

평가기관	평가결과
OECD	• 읽기: 1위 • 수학: 2위 • 과학: 공동 1위 • 전체 성적: 1위
US뉴스앤드 월드리포트	교육시스템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배워야 할 국가로 선정

원래가 자원빈국인 핀란드에서는 '인간'이라는 자원에 투자해 IT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힘을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에 대처하려 했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이라 할 만하다. 핀란드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그 주춧돌이 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고 그를 위해 '현장을 신뢰'하고 '질 높은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다.

※출처: 경향신문(2007.11.5) ['포용교육' 현장을 가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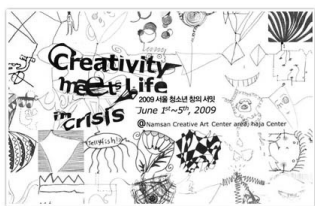
그리하여 핀란드의 교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게 되었고 교사는 모두 대학에서 5년 동안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핀란드의 교사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정부 관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물론 교사평가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밑바탕에는 교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티 메리 헬싱키 대학 교육학부 교육양성학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교사는 학교 현장의 연구자입니다. 핀란드에서도 옛날(20년 이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 단지 지식의 양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지식의 양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 보다는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내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밀어주는 것이 현장의 연구자, 곧 교사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례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까지 영등포구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창의센터'(가칭)로 새롭게 꾸미고 이곳에서 세계 창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청소년 창의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하자센터 옆에 짓는 제2유스호스텔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창의서밋 참가자와 배낭 여행객에게 저렴한 숙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관하는 청소년 창의센터는 기존의 직업체험 교육에서 더 나아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청소년 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청소년 시설에 이를 보급하는 메카 역할도 맡는다.



세계 창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2회 청소년 창의서밋'도 센터 개관과 함께 이곳에서 5일간 열릴 예정이다. 2009년 6월에 처음 열린 청소년 창의서밋에는 각국의 교육, 문화·예술, 창의성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해 청소년 창의성 계발을 주제로 심포지엄과 워크숍, 서울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행사에 12개국에서 5,000

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창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을 아시아 청소년의 '창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고자 창의서밋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10월쯤 센터 리모델

링과 유스호스텔 건립이 끝나면 디자인 한마당 행사와 연계, '창의적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창의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청소년 창의센터를 창의적 인재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다.

주최측은 2009년 행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새로 개관할 '서울청소년창의센터(가칭)'에서 매년 정례적인 '청소년 창의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가 주중에 진행되는데 학교 수업은 어떡할까? 주최측은 일선 학교에 미리 공문을 띄워 학생들의 체험학습시간을 인정해주도록 할 예정이다(서울신문 2009.12.25).

참고자료

- 한라일보(2009.11.26). [세상읽기] 핀란드 교육 이야기, 경쟁에서 협동으로.
- 경향신문(2007.11.05). [포용교] 현장을 가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운다.'
- 서울신문(2009.12.25). 2009 청소년직업센터 '창의센터'로 새단장 : 서울시 내년 10월까지 리모델링.
- Ministry of Education(2008). Education & Culture 2007.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Finnish Government's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07-2011.
- www.finnishyouthcentres.fi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 쇄 2010년 8월 30일

발 행 2010년 8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42

발행인 원장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엘에스컴(02-2263-1992)

ISBN 978-89-7816-862-5(9333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